

## ABSTRACT

---

# **A Study of the Discourse on Neoliberal Society of Control in Vitalistic Architecture**

Advised by Professor Chang, Yong-Soon

Authored by Sung, Ji Yeon

Architecture Maj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

This paper ultimately seek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What are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architecture based on vitalistic thinking?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an architecture based on vitalism, or vitalistic architecture, wa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reductionist, and deterministic modern architecture. Many leading figures in architectural practice and discourse, including Peter Eisenman, Bernard Tschumi, Rem Koolhaas, Greg Lynn, MVRDV, FOA, and Zaha Hadid, have actively referred to the vitalistic ideas that emerged in philosophy and natural science to invent new



methodologies for a spatial organization. In addition, vitalistic architecture has been imagined to liberate individuals from oppressive and restrictive modern spaces.

However, does vitalistic architecture really contribute to the freedom and liberation of individuals? The philosopher Gilles Deleuze, who has been the greatest inspiration for vitalistic thoughts, suggests the other way. Deleuze declares that “societies of control” have arrived and warns that concepts such as continuous variation, folding, and differentiation can rather become spatial organizational tools that reinforce the control and surveillance by power. Based on this, the author attempts to read vitalistic architecture as a strategy of power working in “societies of control.”

First, the research compares Deleuze's “societies of control” and Foucault's “disciplinary society” and analyz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former. The analysis then expands to Foucault's neoliberal governmentality, which is considered by Deleuze to be describing the same concept as a control society. The study derives the main characteristics that define a neoliberal society of control: the analogical paradigm of complexity theory, mobility, production of a homo-oeconomicus, and environmental intervention. These elements constitute the framework for case analysis in Chapter 4. In short, the main purpose of the first half of the paper is to argue that the power mechanism of a control society is not different from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to review the mechanism of “societies of control” where neoliberalism is generalized.

The author then traces how the architectural discourse incorporates the neoliberal market order. Specifically, the study reviews the architectural



discourse that refers to modern corporate organizational theory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which the market order becomes established as an organizational principle of architectural space. In addition, the author examines how modern neoliberal market principles affect urban space organizations through the examples of urban design processes that actively employ market processes.

Finally, this paper investigates specific examples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to explore how space, capital, and subject work in the macroscopic field of power. The study analyzes vitalistic thinking implied in each case, how it encourages users' mobility, transforms the subject into human capital, and can be interpreted as an environmental intervention of power mechanism.

Keywords: Society of Control, Vitalism, Gilles Deleuze, Michel Foucault, Governmentality



생기론적 건축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통제 사회 담론에 대한 연구

성지연



석사학위논문

생기론적 건축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통제 사회 담론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Discourse on Neoliberal Society of Control in Vitalistic Architecture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성 지 연

2022년 8월



**HONGIK UNIVERSITY**

# 생기론적 건축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통제 사회 담론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Discourse on Neoliberal Society of Control in Vitalistic Architecture

지도교수 장 용 순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7월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성 지 연



**HONGIK UNIVERSITY**

# 성지연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 심 사 위 원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홍익대학교 대학원



**HONGIK UNIVERSITY**

국 문 초 록

---

# 생기론적 건축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통제 사회 담론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Discourse on  
Neoliberal Society of Control in Vitalistic Architecture

지 도 교 수 : 장 용 순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성 지 연

---

본고는 궁극적으로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생성적 사유에 기반한 건축의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20세기 후반, 생성적 사유에 기반한 건축 혹은 생기론적 건축은 종래의 환원주의적이고 결정론적인 근대 건축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다. 피터 아이젠만, 베르나르 추미, 램 콜하스, 그레그 린, MVRDV, FOA, 자하 하디드 등 건축의 실천과 담론을 주도하는 많은 건축가들은 철학에서 나타난 생기론적 사유와 과학에서 응용된





생성적 개념을 건축의 디자인 원리로 적극 참조하며 새로운 공간 조직의 방법론을 발명해낸다. 더불어 생기론적 건축은 주체를 근대적 공간의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단으로 상상된다.

하지만 생기론적 건축이 주체의 자유와 해방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과연 유효한가. 이에 대해, 생기론적 사유에 최대의 영감을 제공해온 철학자 질 들뢰즈는 생성과 통제를 연결시키며 정반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들뢰즈는 통제 사회가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연속적 변이, 주름, 생성 등의 개념이 오히려 권력의 통제와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공간 조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저자는 이에 착안해, 통제 사회 권력의 전략으로서 생기론적 건축을 읽어내는 시도를 한다.

이를 위해 들뢰즈의 통제 사회와 푸코의 규율 사회를 비교 분석하고 통제 사회 건축의 일반적 특징을 검토한다. 그리고 들뢰즈가 통제 사회와 동위 개념으로 여기는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으로 분석을 확장하여 신자유주의 통제 사회를 정의하는 주요 특징들을 도출한다. 복잡계 사유의 유추 페러다임, 모빌리티,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생산, 그리고 환경적 유형의 개입이 그것이다. 도출된 네 가지의 특징은 이후 4장의 사례 분석의 틀로 활용된다. 요컨대, 통제 사회의 권력 메커니즘이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다름 아님을 주장하고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통제의 메커니즘을 검토하는 것이 전반부의 주요 내용이다.

그 후 저자는 건축계가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수용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의 기업 조직이론을 참조하는 건축 담론을 검토하여 건축 공간의 조직 원리로 시장의 질서가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또한 시장 프로세스를 적극 참고하는 어반 디자인 프로세스의 사례를 통



해 현대 신자유주의 시장 원리가 도시 공간 조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끝으로 구체적인 건축과 도시 계획 사례들을 조사하여 공간, 자본, 주체 등이 권력의 거시적 장안에서 배치를 이루어 작동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각 사례에서 드러난 생기론적 사유와 그것이 어떻게 이용자의 이동을 장려하고, 주체를 인적자본으로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제 권력의 환경적 유형의 개입으로 해석 가능한지를 검증한다.

건축의 담론과 사례 검토를 통해 본 논고는 생기론적 사유에 기반한 건축이 신자유주의적 질서 확립과 통제 사회의 권력 메커니즘에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키워드 : 통제 사회, 생기론적 사유, 질 들뢰즈, 미셸 푸코, 통치성



# 목 차

■ 국문초록 .....	I
■ 표 목차 .....	VI
■ 그림목차 .....	VII
제 1장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4
제 2장 통제 사회와 통치성 .....	7
2.1 들뢰즈의 통제 사회 .....	8
2.2 푸코의 통치성 .....	11
2.2.1 신자유주의 통치성 .....	12
2.2.2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와 복잡성 논의 .....	20
2.3 소결 .....	22
제 3장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수용하는 건축 담론과 실천 .....	24
3.1 통제 사회-신자유주의 통치성-포스트 포디즘 .....	26
3.2 기업의 조직과 공간의 조직 .....	29
3.3 시장 프로세스와 어반 프로세스 .....	35
3.4 소결 .....	38



제 4장 통제의 수단 혹은 통치 기술로서의 건축 .....	39
4.1 규율 사회의 건축과 통제 사회의 건축 .....	42
4.2 매끄러운 공간, 주름, 랜드스케이프 .....	46
4.2.1 Villa VPRO .....	47
4.2.2 Rolex Learning Center .....	51
4.3 카오스, 복잡계, 자생적 질서, 변수 알고리즘 .....	59
4.3.1 Ville Nouvelle Melun-Sénart .....	59
4.3.2 Yokohama Port Terminal .....	61
4.4 소결 .....	66
제 5장 결론 .....	68
5.1 종합 및 결론 .....	69



## 표 목 차

[표 2-1] 규율 사회와 통제 사회의 특징 비교	10
[표 2-2] 규율 권력과 통치성의 비교	12
[표 2-3] 자유주의 발전의 흐름	15
[표 2-4]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특징	22
[표 4-1] 사례 분석의 정리	66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	6
[그림 3-1] 기업의 조직 구조를 건축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한 분석적 다이어그램	32
[그림 3-2] 직원과 프로젝트 팀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얻어낸 조직 다이어그램	33
[그림 3-3] 좌: 동선을 감싸고 있는 다섯 개의 shell 우 첫 번째: 순환 동선의 겹겹으로 이루어진 공간 우 두 번째: 직원의 원활한 만남과 이동을 위한 가구 단위의 배려	34
[그림 3-4] Mumbai Expansion, Ursula Frick & Thomas Grabner, Tutor: P. Schumacher	37
[그림 4-1] 판옵티콘 모델이 적용된 교실의 모습	43
[그림 4-2] 판옵티콘 모델이 적용된 병원 계획	44
[그림 4-3] Villa VPRO	48
[그림 4-4] Villa VPRO의 내부 전경과 중첩된 판	49
[그림 4-5] Rolex Learning Center의 조감도	53
[그림 4-6] Rolex Learning Center 평면과 프로그램 배치도	53



[그림 4-7] Rolex Learning Center 내·외부를 가로지르는 시선	55
[그림 4-8] 최소한의 물리적 구분과 이질적 프로그램의 공존	55
[그림 4-9] 유리로 애워싸인 협업 공간 bubble	56
[그림 4-10] Melun-Sénart Urban Plan, OMA	61
[그림 4-11] Yokohama Port Terminal의 순환동선	63
[그림 4-12] 도시의 공원으로로서 기능하는 조망 데크	64



## 제 1 장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3년, *Folding in Architecture* 에서 그레그 린Greg Lynn을 위시한 몇몇의 건축가들이 질 들뢰즈의 개념에서 건축적 형태의 가능성을 탐구한 이래로, '주름, 매끄러운 공간 그리고 흠이 패인 공간' 등 들뢰즈의 생기론적 사유<sup>1)</sup>는 건축계에 창의적 활력을 불어 넣었다. “천의 고원(1988)” 에서 위상학적 복잡성과 연속적 변이continuous variation의 조건으로 제시된 ‘매끄러운 공간’은 당시 건축가들에게 분절되고 표준화된 ‘흠 패인 공간’으로서의 근대적 건축을 극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또한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2004)” 에서 들뢰즈는 물질을 환원적인 요소로 나뉘지 않고 생기적 힘에 의해 접히고 풀리는 개념으로 새롭게 제시하는데, 이런 형태적 비유는 ‘매끄러운 공간’과 더불어 연속적이고 열린 공간에 대한 영감을 제공했다. 그리고 더 큰 틀의 생기론적 사유와 더불어 들뢰즈의 개념어는 단순히 형태적 영감을 넘어서 ‘진보적인’ 건축 담론을 형성하는 구심점이 되었다<sup>2)</sup>. 유목적이고, 생성적이며 차이의 생산을 긍정하는 자유로운 공간이 주체

- 
- 1) Chang(2012; 2013)은 근대적 사고를 특징짓는 환원주의적인 기계론의 대립항으로서 생기론적 철학을 검토한다. 과정 중심적이고 종합적인 사유를 특징으로 하는 생기론은 철학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를 갖고, 자연 과학에서는 인공 생명과 복잡계 과학에 관한 논의까지 확장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본고는 건축의 담론과 실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들뢰즈의 매끄러운 공간, 주름 등의 철학적 개념과 자기조직, 창발, 복잡성 등의 복잡계 과학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로 생기론의 범위를 한정짓는다. 생기론의 철학적 연원과 과학적 적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는 다음을 참조하라: Chang, Y. (2013). *The Philosophical adventure of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04. Vitalisme. Paju: Mimesis.
  - 2) 그레그 린은 ‘주름’과 ‘매끄러운 공간’이 동질(모더니즘)과 이질(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분법적 공간 구분을 넘어서 "차이"를 새로운 방법으로 조작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하 하디드는 "매끄러운" 형태의 환경은 무엇도 확정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 놓고 각계각층의 사람이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장을 조성한다고 언급한 바 있



를 근대적 공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3).

그러나 과연 ‘매끄러운 공간’ 과 ‘주름’ 으로 설명되는 건축 공간이 정말 주체의 해방에 기여하는가? “매끄러운 공간은 그 자체로 해방적일 수 없다4)” 는 들뢰즈의 발언은 차치하더라도 연속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이 통제의 적극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들뢰즈의 다른 텍스트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1992)” 는 그간의 건축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5). 건축계가 들뢰즈를 비롯한 생기론적 사유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아낸 그 동일한 시기에 철학자는 통제 사회 society of control의 도래를 선언한 바 있다. 통제 사회는 규율 사회 disciplinary society<sup>6)</sup>와는 달리 감시의 공간이 열려있고 연속적인 사회다. 규율 권력이 폐쇄적이고 분절된 제도적 공간에서 감시와 처벌을 행했다면 통제 메커니즘은 연속적이고 열린 공간에서

---

다. Spencer(2012)은 비록 들뢰즈의 언어를 차용하는 건축가들이 명백하게 건축 실천과 사회적 가치를 연관 짓지는 않지만 이른바 자신들의 "새로운 건축"이 유연하고 적응적인 새 시대의 주체상을 생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암묵적으로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3) Spencer, D. (2012). Smooth operators: Architectural deleuzism in societies of contro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estminster. London. pp. 5-7.

4) Deleuze, G., & Guattari, F. (1988).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Bloomsbury Publishing. p. 500.

5) Spencer(2012; 2016)는 들뢰즈의 통제 사회 분석과 ‘건축에서의 들뢰즈주의 Architectural Deleuzism’을 연결시키며 관련 실천과 담론을 비평한다. 하지만 들뢰즈의 철학적 개념어를 채택하는 특정 건축가들의 사례만을 다루는 작가 중심 접근은 ‘통제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에 대한 포괄적 검토에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그의 연구는 개별 건축물에 국한된 비평으로 도시 스케일의 논의는 배제한다. 들뢰즈의 철학이 생기론적 사유라는 더 큰 틀안에 자리잡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생기론적 개념이 활용되는 건축과 도시 디자인 전반으로 통제 사회의 논의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생기론적 사유가 적용된 현대 건축의 대표적인 흐름인 랜드스케이프 건축, 변수 알고리즘에 의한 건축, 복잡계에서 유추한 도시 설계의 사례 분석을 통해 포괄적인 비평을 시도한다는 면에서 독창성을 갖는다.

6) 푸코의 규율 권력과 규율 사회에 대한 논의를 참조하라.



작동한다. 정리하자면 연속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은 통제 메커니즘의 작동 영역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에 본 논고는 사회 비평에서는 개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가능하게하는 환경적 조건을 묘사하기 위해 쓰였던 개념이 어떻게 건축의 실천과 담론에서는 창의적인 디자인 모티프로 활용되고 심지어 해방적인 사회적 가치까지 함의하게 되었는지 그 경로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기론적 사유와 연계된 건축이 해방 기제가 아니라 통제 기계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1.2 연구의 방법과 절차

추적의 출발점은 들뢰즈의 통제 사회에 대한 분석이다. 이 분석은 아홉 단락으로 다소 간결하지만 미셸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품고 있다.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는 들뢰즈 본인이 ‘통제’의 개념이 “푸코가 당도한 미래로 인식한 바로 그것<sup>7)</sup>”이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도한 미래”에 대한 명확한 참조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푸코의 개념 중에는 통치성이 유일하게 현대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들뢰즈가 통제의 개념을 통치성에 기대어 정의하고 있다고 무리 없이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2장에서는 우선 들뢰즈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통제 사회’의 특징을

---

7) Deleuze, G. (2017).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 Surveillance, crime and social control (pp. 35-39). Oxfordshire: Routledge. p. 3.



살펴본다. 그리고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생산하고자하는 주체성과 통치 기술로서 채택하는 환경적 개입이 의미하는 바를 검토할 것이다.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기틀을 마련한 하이에크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서 ‘자기 조직화,’ ‘창발,’ 그리고 ‘복잡성’ 등의 개념이 어떻게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큰 기획 아래에서 유행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요컨대 2 장에서는 들뢰즈의 통제 사회 분석과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 논의를 통해 생기론적 개념어들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탐구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복잡성 관련 개념과 ‘주름’ 이나 ‘매끄러운 공간’ 이 건축계로 수입되면서 어떻게 통제의 부정적 의미를 벗고 진보와 해방의 수식과 결합하는지 파악해보겠다. 이를 위해서 건축가이자 비평가인 패트릭 슈마허의 글과 작품을 분석한다. 슈마허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그가 명시적으로 신자유주의 질서를 옹호하고 건축에 접합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건축과 시장의 관련성을 추적하기 용이하게 한다. 또 그가 활발한 저술 활동으로 건축 담론을 주도했고 현대 건축 거장인 자하 하디드의 건축에 주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음을 고려할 때 그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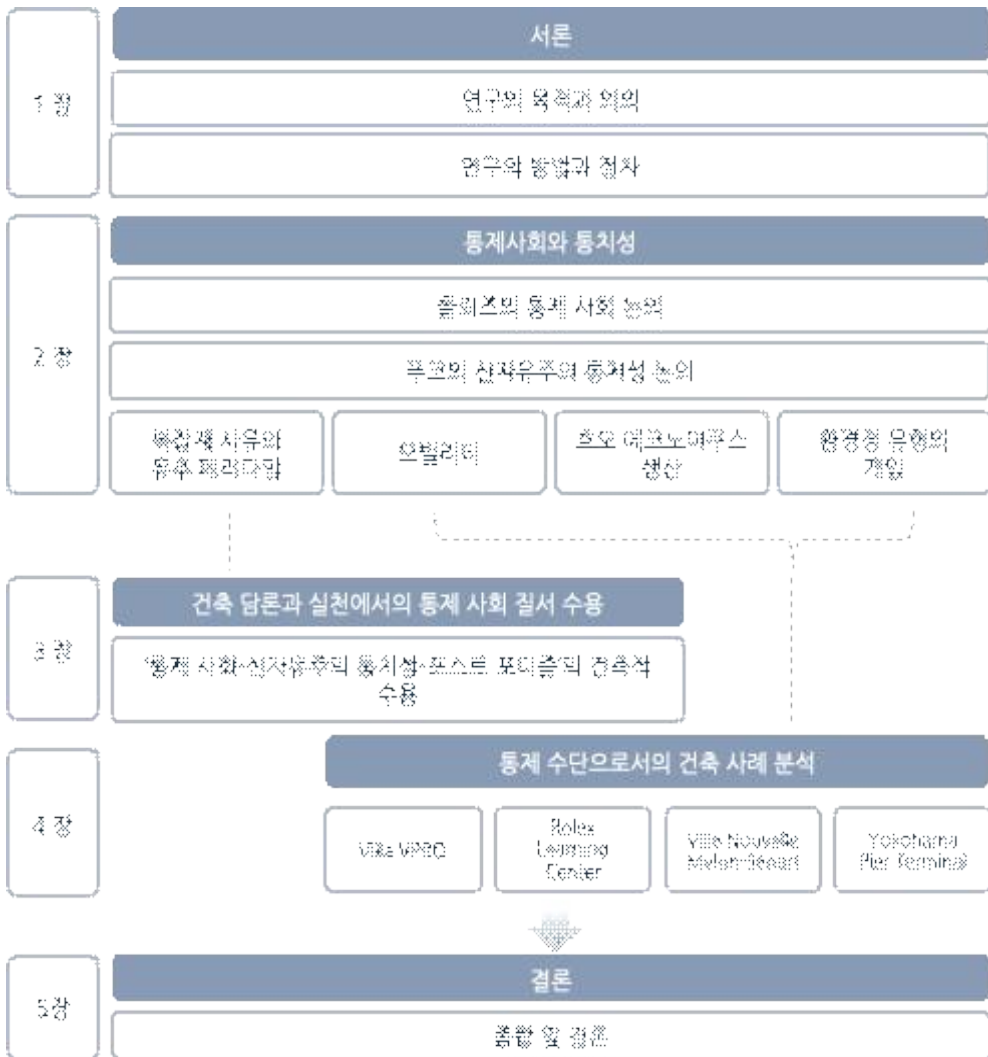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생기론적 사유에 바탕을 둔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변수 알고리즘에 의한 건축 그리고 복잡계 사유를 활용하는 도시 설계안을 통제의 수단 또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기술로 읽어내는 시도를 한다. 하지만 “정의상 자유의 기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사물의 질서 덕분이 아니라” 오직 “자유의 실천”<sup>8)</sup>으로 인해서 주체의 해방이 가능한 일임을 상기할 때, 절대적

---

8) Foucault, M., and Derfert, D. (2014). *Les Hétérotopies*, translated by Lee, S. G.



의미에서의 해방 기계나 통제 수단으로서 건축물을 정의내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 제 2장 통제 사회와 통치성

---

- 2.1 들뢰즈의 통제 사회
- 2.2 푸코의 통치성
- 2.3 소결



## 2. 통제 사회와 통치성

### 2.1 들뢰즈의 통제 사회

*“통제 메커니즘의 개념은 공상과학 같이 저장하지 않다. 그것은 어떤 요소건 어떤 순간에도 개방된 환경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유원지의 동물이건, 사원증을 목에 건 기업 내의 인간이건.”<sup>9)</sup>*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1992)”에서 들뢰즈는 규율 사회<sup>10)</sup>와 대비되는 통제 사회의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한다. 통제 사회는 푸코가 분석했던 규율 사회의 이후 모델로서 제시되었다. 그는 푸코가 정의한 규율 사회가 20세기의 초입에서 정점을 찍고 쇠퇴했다고 주장한다. “집중시키고 공간 내에 분배하고 시간 내에 질서 지우면서 생산력을 구성하는<sup>11)</sup>” 규율 권력의 작동방식은 이미 세계 제 2차 대전을 지나며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통제 사회에 대한 이해는 그에 앞선 규율 사회와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깊어진다. 규율 사회에서 권력은 학교, 감옥, 병원 그리고 공장 같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특정한 규칙에 따라 개인을 감시하고 처벌한다. 장소 특정적 훈육을 거친 개인들은 각각 학생, 죄수, 환자 그리고 노동자에 적합한 주체로 거듭난다. 반면 통제 사회에서 권력 관계는 제도와 장소로 분절된 감시와 처벌의 메

9) Deleuze. 앞의 책. p. 3.

10) 푸코는 규율 권력의 감시와 처벌의 메커니즘이 일반화된 사회를 지칭하기 위해 규율 사회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

11) Deleuze. 앞의 책. p. 3.



커니즘에 의존하지 않는다. 권력의 새로운 작동 방식인 통제는 제도적 공간의 경계를 흐리고 개인에게 여러 주체성을 동시에 요구한다<sup>12)</sup>. 예를 들어, 교육 기관화된 기업에서 개인은 상황에 따라 “업무와 학습이라는 상이한 활동”을 조절하는 “적합한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정정훈, 2007). 들뢰즈는 주형과 모듈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대조한다:

“각각의 개인들이 통과하는 서로 다른 내부 또는 폐쇄 공간들은 독립 변수다: 개인은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고 이 모든 장소들에 대한 공통 언어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비유적일 뿐이다. 반면, 여러 개의 다른 통제 메커니즘들은 분리할 수 없는 변형으로, 숫자를 언어로 하는 가변 기하학 체계를 형성한다. 닫힌 공간space of enclosure는 별개의 주형mold이지만 통제는 자체적으로 변형하는 주형인 모듈레이션modulation이다.”<sup>13)</sup>

들뢰즈에 따르면 규율 사회에서 각각의 제도는 독립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주체를 훈육하고 처벌한다. 학교와 군대 그리고 공장은 비록 보편적인 규율 메커니즘(이른테면 위계질서적 감시, 규범화 제재, 평가, 감시, 기록, 처벌)이 작동하는 공간이지만 학생, 군인, 노동자를 별개로 생산한다. 학생으로 훈육된 주체가 입대를 하면 군대의 규칙에 의해 군인으로 처음부터 다시 훈육된다.

12) 가령 노동자에게 학생이 될 것을 요구한다거나 반대로 노동자에게 끊임없는 학습의 자세를 요구하는 식이다. 최근 대학의 기업화와 기업의 교육기관화 현상을 떠올리며 이해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13) Deleuze, G. (1992).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 *October*, 59, 3-7. <http://www.jstor.org/stable/778828>. p. 4.





그리고 공장에 취업을 해 노동자가 된다면 노동자에 적용되는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규율 사회에서는 한 제도의 규율과 처벌이 주어진 공간을 넘어서 작동하지 않는다. 규율 권력이 장소 특정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통제 사회에서 주체는 어느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업, 교육 그리고 군 체제는 하나의 같은 모듈레이션 안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공존” 한다. 앞서 말했듯, 대학인지 기업인지 모를 환경에서 또는 기업인지 학교인지 모를 공간에서 주체는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서 교육이나 업무의 규범에 맞게 행동한다.

들뢰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규율 권력은 “주형mold” 으로 제도와 장소에 적합한 주체를 찍어내듯 생산하는 반면 통제를 채택한 권력은 상황에 따라 틀을 변형시키는 “모듈레이션modulation” 으로 주체를 생산한다. 주형이 각 제도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규율 권력의 다소 제한적 수단이라면 모듈레이션은 시장의 작동을 초제도적 상위 질서로 상정하는 사회 통제의 수단이다.

[표 2-1] 규율 사회와 통제 사회의 특징 비교

요소 <sup>14)</sup>	규율 사회(Disciplinary Society)	통제 사회(Society of Control)
제도(Institution)	각 제도는 독립적이며 그것만의 고유한 규범에 따라 규율과 처벌이 작동한다.	제도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하나의 모듈레이션에 의해 불안정한 상태로 공존한다.

14) 이외에도 들뢰즈는 규율 사회와 통제 사회를 구분 짓는 특징으로 각 사회에 대응되는 기계의 종류와 발전된 기술의 차이를 상세하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다.



공간적 특징	하나의 제도에 소속된 공간은 폐쇄적이다. 반대로 주어진 공간은 특정 제도가 규율하는 경계를 설정한다. 제도와 공간은 서로를 구속한다.	모듈레이션이 주재하는 공간은 특정 제도에 구속 받지 않으며 열려있고 연속적인 특징을 지닌다.
생산되는 주체성	주어진 제도와 공간에 특정한 주체성이 생산된다.	제도나 공간 특정한 주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정체성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체는 끊임없는 생산의 상태에 놓여있다.

## 2.2 푸코의 통치성

들뢰즈가 묘사하는 통제 사회는 일찍이 푸코가 분석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에서의 일련의 실천들과 유사하다. 1990년, 들뢰즈가 푸코의 규율 사회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해 통제 사회라는 후기 개념을 제시하기 전, 푸코는 이미 스스로 규율 권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권력의 양식을 분석한 바 있다. 1978년과 79년, 양년에 걸친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이라는 강의에서 그는 국가와 주체의 관계를 ‘통치성’이라는 개념으로 다룬다. ‘통치성governmentality’는 governing(통치행위)과 mentality(사유의 양식)의 합성어로 푸코가 고대 그리스에서 근대의 신자유주의까지 이르는 기간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일종의 분석 지침으로서 고안한 용어다<sup>15)</sup>.

그렇다면 통치성은 앞서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가 분석했던 규율 권력과 어떤 관계인가. 심세광은 규율 권력을 “각 개인의 품행에 직접적으로 행사”

15) Spencer. 앞의 책. p. 158.



되는 미시권력으로, 통치성은 국가가 인구를 통치하는 문제와 관련된 거시권력으로 해석한다(2011). 결국 규율 권력과 통치성은 각각 개인의 신체와 국가의 인구로 작용 범위를 달리할 뿐 근본적으로 권력의 작동 방식과 권력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유사한 개념적 도구다.

[표 2-2] 규율 권력과 통치성의 비교

요소	규율 권력(Disciplinary Power)	통치성(Governmentality)
권력의 작용 대상	권력이 개인의 신체와 행동에 직접적으로 행사된다. 권력 메커니즘이 미시적으로 작동한다.	국가의 인구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작동한다.
공통점	권력의 작동 방식과 권력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유사한 개념적 도구	

### 2.2.1 신자유주의 통치성

이상 규율 권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통치성을 검토하였다. 실은 들뢰즈가 통제 사회와 동일시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통치성의 특수한 형태로서 그 기원은 18세기 스코트랜드의 자유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푸코의 통치성 분석 중 특히 본고의 논의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특징과 그것이 채택하는 통치 기술의 집합이다. 앞서 지적했듯, 이 특정한 통치성에 대한 푸코의 설명이 들뢰즈의 ‘통제 사회’ 개념을 보완하기 때문이다<sup>16)</sup>:

16) 푸코가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을 분석하던 70년대 후반에는 전자적 감시체제가 일반화되기 전이다. 따라서 들뢰즈의 통제 사회와 완전히 등치할 수는 없지만 주체에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유사하게 설명하므로 상호 보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이것이 규율 사회를 대체 중인 통제 사회다. “통제”는 버로스가 새로운 괴물을 지칭하기 위해 제안했던 용어이고, 푸코가 코 앞으로 닥친 우리의 미래로 인식했던 것이다. 폴 비릴리오 또한 폐쇄된 시스템의 시간 틀에서 작동하는 오래된 규율을 대체하는 초고속 형태의 자유롭게 부유하는 통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sup>17)</sup>

여기서 “푸코가 코 앞으로 닥친 우리의 미래로 인식했던 것”은 미국에서 급진화된 자유주의, 즉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다. 푸코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2012)에서 18세기부터 현대까지 자유주의가 거듭해온 변형을 추적한다.

푸코에 따르면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를 계승하여 급진화시켰다. 그리고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는 18세기 중반 등장한 자유주의에 기원한다. 초기 자유주의는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통치”를 추구하며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 고찰했다. 그것이 채택하는 전략이란 자연적 메커니즘을 따르는 시장을 기준으로 삼아 “통치실천을 검증하거나 그 오류를 판별”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장은 “진실 같은 어떤 것의 계시자”의 지위를 획득한다. 자연의 법칙과 같은 가격 기구가 작동하는 진실의 공간인 시장<sup>18)</sup>은 이후 신고전적 자유주의를 거치며 신자유주의까지 통치 실천의 준거가 된다.

17) Deleuze, G. (1992).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 *October*, 59, 3-7. <http://www.jstor.org/stable/778828> p. 3.

18) “시장은 진실의 장소가 되는데 그것은 자연적 메커니즘을 출현케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해 서 그 자연적 메커니즘이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내버려둘 때 일정한 가격형성을 가능케 합니다 (Foucault, 2012, p.58).”



하지만, 자유주의와 뒤따라오는 신자유주의의 통치가 경제의 영역에만 국한되었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푸코는 “자유주의 경제 이론보다도 통치술로서의 자유주의”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자유주의의 주장들을 “통치 학설”의 범주에서 다루고자 함을 누차 강조한다<sup>19)</sup>.

푸코가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원류로 지목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는 전후 독일에 정치와 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던 당시 수상 에른하르트가 소집한 학술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른바 프라이부르크 학파<sup>20)</sup>로 불린 이들은 발터 오이켄, 프란츠 뵘, 할프레트 뮐러-아르마크, 빌헬름 뢰프케, 그리고 알렉산더 뤼스토우를 포함한다. 그들은 어떠한 전체주의적인 그림자도 남겨놓길 거부했다. 나치즘같이 전체성을 도모하는 모든 종류의 정치적인 실천은 이들에게 확실한 안티테제로 자리잡았다. 요컨대 그들의 목표는 “보호경제,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 케인즈주의 식”<sup>21)</sup>의 모든 개입주의를 근절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일체의 간섭을 발본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장의 자유가, 국가를 그 존재의 시작부터 그 개입의 최종형태에 이르기까지 조직화, 규칙화하기 위한 원리”<sup>22)</sup>로서 작동하도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시장의 자유가 탄생한 것이다. 푸코가 분석한 자유주의 발전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9) Foucault. 앞의 책. p. 21

20) 독일의 자유주의 사상의 역사는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등장에 선행한다. 다만 프라이부르크 학파는 자유주의를 전면적이고 적극적으로 통치의 양식으로 고려한다.

21) Foucault. 앞의 책. p. 168.

22) Foucault. 앞의 책. p. 181.



[표 2-3] 자유주의 발전의 흐름

유형	시기	특징
고전적 자유주의	18세기 중반 ~ 19세기 초	시장과 사회는 분리되어있다. 시장은 가격을 조절하는 기능만을 담당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시장은 '자유방임'의 원리를 따른다. 또한 시장의 자연적 가격 조정 메커니즘은 '진실'의 지위를 획득한다.
신고전적 자유주의	19세기	시장의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적논리는 '경쟁'이다. '경쟁'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이 개입해서 '경쟁'의 원리를 시장 내 확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생겨난다.
신자유주의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 제 2차 세계 대전 후	시장과 사회의 통합이 일어난다. 시장은 더 이상 가격만을 조절하지 않는다. '경쟁'이 시장의 내적 논리로 지목되고 '경쟁 메커니즘'을 조장하려는 개입이 기획된다. 시장을 넘어 사회에서까지 경쟁이 일반화된다. 이제 시장과 사회는 '개입적 자유주의'를 따른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제 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의 자유주의는 18세기 말 미국의 독립과 함께 발생하여 유럽 대륙과는 독자적인 발전을 겪는다. 그럼에도 미국 신자유주의의 모태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이다.)	독일 질서자유주의를 계승하며 급진화한다. 노동을 자본으로 간주하며 경제적 행동양식을 내면화한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시장 및 사회 통제의 단위로 설정한다.

독일 질서자유주의의 기획의 소산은 이른바 “기업enterprise형식이 보편화된 사회”다. 기업형식이 일반화된 사회라 함은 개인,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국가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사회조직이 모두 기업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회다. 기업은 곧 경제적인 판단에 의해 행동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언을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르도록 지도하는 행동 양식은 이제껏 시장의 외부로 남아있던 사회의 영역까지 포섭하는 보편적 태도가 된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노동환경, 삶의 시간, 부부생활, 가족, 자연환경”<sup>23)</sup>까지도 투자-비용-이윤의 모델을 통해 해석한다. 이렇게 개인을 시장의 원리에 합치시키는 통치 전략은 국가 이성의 개입 여지를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시장의 외부를 없애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의 논리를 계승하여 급진적으로 발전시킨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세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가동성(mobility)과 둘째, 경제적 행동양식으로 해석되고 관리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생산 그리고 셋째,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관리하기 위한 “환경적 유형의 개입”이다.

#### 1) 개인의 가동성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노동을 자본의 일종으로 편입시키며 고전 경제학과 차별화한다. 노동이 자본이라는 말은 노동의 가치가 미래 예상되는 소득의 현재 가치와 같다는 말이다. 이 때, 노동력을 소유한 인간 즉, 노동자의 가치는 자신이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의 소득으로 결정된다. 자본은 노동자의 신체적인 특징이 될 수 있고 정신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을 자본으로 보는 견해의 포괄성은 가공할만한데, 그 이유는 노동자의 모든 선택과 행위를 ‘자본에 득인가 실인가’라는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푸코는 이러한 인적자본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동성에 특히 주목<sup>24)</sup>한다. 가동성은

23) Foucault. 앞의 책. p. 336



“한 개인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것이 다른 국가로의 이주 migration이든,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이든, 다른 동네로의 이사이든 또는 단순히 산책과 같은 간단한 형태의 이동이든 간에 이동하는 개인은 전보다 나은 기회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이주는 투자”이며 “이주자는 투자자”이다. 이동은 곧 “지위와 보수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이동 자체를 긍정하고 장려한다.

## 2)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생산

미국 신자유주의가 발명한 인적자본개념이 겨냥하는 최후의 지점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다. 모든 개인, 그러니까 경제적 행동양식을 내면화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기를 경영하는 기업가 entrepreneur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경제적 이득과 손실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주체로 설정한다는 뜻은 한 개인이 득과 실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뜻이다. 이 전제는 어떻게 개인을 관리할 수 있는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전체 통치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모델은 “타고난 범죄자, 일시적 범죄자, 성도착자”<sup>24)</sup>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즉,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를 가리지 않고 경제적 행동 양식이 한 개인을 이해하는 척도가 된다. 이러한 인간상에 대한 전제가 경제 영역을 넘어서 사회 영역까지 퍼졌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은 수월하게 사회 조직까지 통치의 영역에 포섭할 수 있게 되었다. 규율 사회에서 주체가 학교, 병원, 공

24) Foucault, 2012, pp. 326-327.

25) Foucault. 앞의 책. p. 364.





장 등 각각의 제도에 구속되는 규칙을 따랐다면, 통제 사회에서 주체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는 단일의 경제 규칙을 따르게 된다. 심세광, 전해리, & 조성은(2012)은 이를 두고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파블로프의 개’처럼 쉽게 ‘조련가능’하고, ‘조작가능’하며, ‘통치가능’한 주체, 즉 시장 원리를 내면화한 자기관리 주체”를 탄생시켰다고 평가한다.

### 3)환경적 유형의 개입

이처럼 주체가 “자신의 이득과 손실의 변화에 ‘반응적’이라는 사실을 수용”<sup>26)</sup>한다면 규율 권력처럼 감시와 처벌이 직접적이고 억압적일 필요가 없어진다. 주체에 대한 관리는 경제적 득과 실을 조정 하는 행위만으로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푸코가 말한 “환경적 유형의 개입” 또는 “환경테크놀로지”는 그와 같은 깨달음에서 탄생한 신자유주의의 특징적인 통치술이다. 주체를 원하는 방식으로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적 게임의 규칙을 조성하는 일일 뿐이다. 학교, 감옥, 그리고 병원에서 엄격하게 작동하던 감시와 처벌의 기술들은 신자유주의 통치 하에서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적 개입<sup>27)</sup>으로 진화하여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런 분석의 지평에서 나타나는 것은 철저하게 규율적인 사회 …가 아*

26) Foucault. 앞의 책. p. 364.

27) 환경 또는 배경에 관한 논의는 잠재, 연속, 생성의 생기론적 개념을 채택하는 건축 실천에서도 두드러진다. 근대의 건축물이 오브제로서 존재했다면 배경으로서의 현대 생기론적 건축은 사건을 배태하는 장으로서 작동한다(Chang, 2013, p.155.). 푸코가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특징으로 지적한 환경적 유형의 개입은 물론 건축 공간같은 물리적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말한 환경은 주체를 조종하는 유무형의 틀과 규칙에 가깝다. 하지만 권력의 작용이 “사건과 프로그램을 현실화하는 장”을 특정 방식으로 조건화할 수 있다면 건축과 도시의 공간은 충분히 ‘환경적 유형의 개입’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냅니다. ... 반대로 이런 지평에서는 차이의 체계가 최적화되는 사회, 변동하는 절차에 그 장[영역]이 자유롭게 열려 있는 사회, 개인들이나 소수자들의 실천에 관용을 보이는 사회, 게임 참가자들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들과 관련해 작용하는 사회, 마지막으로 개인을 내적으로 종속화하는 유형의 개입이 아니라 환경적 유형의 개입이 행해지는 사회의 이미지, 관념, 주제-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28)

학교, 감옥, 그리고 병원에서 엄격하게 작동하던 감시와 처벌의 기술들은 신자유주의 통치 하에서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적 개입으로 진화하여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푸코는 다음의 설명으로 “환경적 유형의 개입”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사회정책은 각각의 사람을 게임 참가자로 간주하고 그들 각자가 게임할 수 있는 환경에만 개입해야한다.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이런 환경적 테크놀로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측면을 갖는다.

-개인이 게임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느슨한, 개인 주변의 틀에 대한 규정. [...] -환경 공간의 자율성 [...] 획일화, 동일화, 계층화하는 개별화가 아니라 유연성과 횡단적 현상들에 개방적인 환경성 (environnementalité).” 29)

들뢰즈가 통제 사회에 대한 다소 일반적인 묘사에 머물렀다면 푸코는 통치

28) Foucault. 앞의 책, pp. 364-5

29) 강의 원고에 기록된 내용이다. 강의된 바는 없다(Foucault. 앞의 책, p. 365.).



성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환경”이 통치술로 등장한 경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종합하자면 통제나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연속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나타나는 환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인을 조정하고 경제적 주체를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 2.2.2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sup>30)</sup>와 복잡성 논의<sup>31)</sup>

경제적 행동양식을 따르는 주체성의 생산과 환경을 통한 통제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드러난 특징들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드러나지 않은 기획을 파악하는 일도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을 오가며 현대 신자유주의적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그는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개인의 인식은 너무 제한적”<sup>32)</sup>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는 “인류의 자존심에는 굴욕적일지라도, 문명의 진보와 보존은 사고accidents가 일어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sup>33)</sup>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연한 사건을 허용하기 위해 인간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30) 자생적 질서 spontaneous order는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서 처음 등장한다(Jacobs, 2000).

31) 푸코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하이에크를 주요하게 인용하긴하지만 이는 주로 시장과 사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Jacobs(2000)은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논의가 기원하는 지점이 폴라니의 자연과학적 사회분석에 있음을 밝힌다(Jacobs, 앞의 책, p. 57.). Spencer(2012; 2016) 또한 하이에크와 폴라니의 사상적 연관성에 주목하는데 이 연관이 중요한 이유는 폴라니의 사상적 기반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분석이 자연과학에 버금가는 객관성을 가진 듯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32) Spencer, D. (2016). The architecture of neoliberalism: How contemporary architecture became an instrument of control and compliance. Longdon: Bloomsbury Publishing. p.17.

33) 진화에 돌연변이가 필요하듯 문명의 진보에도 사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Hayek, F. and Hamowy, R. (2021). The Constitution of Liberty: The Definitive E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81).



‘필요한 무지necessary ignorance’로 세상의, 정확히 말하면 시장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를 따르는 것이다. 시장의 질서는 외부의 개입 없이 가격기구와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작용만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개인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비록 자유를 위해 사회 질서 전체에 대한 이해의 의지는 반납해야하지만. 이렇게 하이에크는 시장의 질서와 해방의 가치를 연결짓는 첫 번째 고리를 완성한다.

그가 기획한 두 번째 고리는 ‘복잡성complexity’의 유추를 통해 시장, 기술 발전, 법과 도덕 심지어는 언어까지 제분야의 질서를 하나의 패러다임<sup>34)</sup>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후기 하이에크는 당대 (1960년대) 유행하던 복잡계 이론을 직접적으로 참조하면서 시장을 포함한 자연적 시스템들의 자생적 질서는 인간적인 제도로 통제될 수도 없고 예측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sup>35)</sup>. 이로써 하이에크는 자연 과학까지도 섭렵하는 모델로 시장과 사회 질서를 설명함으로써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자연의 이치와 대등한 당연함과 객관성을 확보해준다. 참고로 하이에크가 주요하게 인용하는 인물로 일리아 프리고진Ilya Prigogine이 있는데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Alejandro Zaera-Polo나 파시드 모싸비 Farshid Moussavi등의 건축가들도 그의 사유에 드러난 ‘자기-조직적’이고 ‘창발적’인 물질의 조직 원리를 참조하면서 새로운 공간의 조직 담론을 형

34) 사실 하이에크의 초기 논의는 “복잡성” 개념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60년대 후반 복잡계 이론을 접한 하이에크는 그간의 주장이 복잡계 과학의 이론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토포이에시스autopoiesis’,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그리고 ‘시스템 이론systems theory’ 등의 개념어로 그의 철학을 재정비한다(Cooper, M. (2011). Complexity theory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death of neoliberalism or the triumph of hayek?. Journal of Cultural Economy. 4(4), pp. 373-375). 그가 인용하는 일리아 프리고진은 자에라 폴로와 마쭈비의 건축 이론에도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다.

35) Cooper. 앞의 책. p. 376.



성한다. 요컨대 복잡계 이론을 참조하는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물질적materialistic 조직 원리인 ‘자기 조직’ 과, ‘창발’ 그리고 ‘복잡성’ 을 유일무이한 질서로 설정하는 것이다.

### 2.3 소결

[표 2-4]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특징

요소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특징
가동성mobility	이동하는 개인은 전보다 나은 기회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이주는 투자”이며 “이주자는 투자자”이다. 이동은 곧 “지위와 보수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이동 자체를 긍정하고 장려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모든 개인, 그러니까 경제적 행동양식을 내면화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기를 경영하는 기업가entrepreneur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경제적 이득과 손실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주체로 설정한다는 뜻은 한 개인이 득과 실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뜻이다.
환경적 유형의 개입	경제적 행동양식을 내면화한 주체를 통제함에 있어서 규율 권력처럼 감시와 처벌이 직접적이고 억압적일 필요가 없어진다. 주체에 대한 관리는 경제적 득과 실을 조정 하는 행위만으로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권력이 주체를 원하는 방식으로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적 게임의 규칙을 조성하는 일일 뿐이다.

들뢰즈의 통제와 푸코가 분석했던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유사한 권력의 메커니즘을 묘사한다. 경제적 행동양식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를 전제하고 환경적 유형의 개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체를 통제한다. 들뢰즈는 그 환경의 조건을 구체화 하면서 규율 사회의 분절된 공간과는 달리 통제가 연속적이고 개방적이며 연속적 변이의 공간을 통해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통제와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그렇게 간접적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재생산하며 경제적 행동양식



을 시장을 넘어 사회에까지 일반화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높은 침투성을 갖게 된 데에는 하이에크의 공로가 크다. 하이에크는 복잡계 이론을 참고하면서 자유 시장의 가치가 자연의 당연함과 과학의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시장의 질서를 긍정하는 길은 인류의 진보와 개인의 자유 확장에 기여한다고 함으로써 신자유주의를 해방적 가치와 연결시킨다. 장차 신자유주의적 교리는 복잡계 사유의 다학제적 패러다임을 타고 확장하게 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건축의 담론과 실천에서의 수용과정을 추적하도록 한다.



## 제 3장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수용하는 건축 담론과 실천

---

- 3.1 통제 사회-신자유주의 통치성-포스트 포디즘
- 3.2 기업의 조직과 공간의 조직
- 3.3 시장 프로세스와 어반 프로세스
- 3.4 소결



### 3.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수용하는 건축 담론과 실천

들뢰즈의 철학과 복잡계 질서를 참고하는 현대 건축의 실천과 담론은 생기론적 사유라는 큰 틀로 묶일 수 있다. “생명성과 생명 현상 자체에 관심을 갖는”<sup>36)</sup> 생기론적 사유는 생명 철학, 복잡계 과학 그리고 건축 등의 분야에서 기계론적 환원주의에 대항하는 하나의 대안적 태도를 이룬다. 2장에서는 철학과 과학을 넘어서 정치 경제의 영역에서 생기론적 사유가 유용되는 과정을 푸코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분석과 하이에크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국 철학, 과학 그리고 건축에서의 생기론적 담론은 통제, 권력, 정치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 본고의 주요 전제<sup>37)</sup>다. 앞서 살펴보았듯,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권력의 작용과 정치에 대해 규범적으로 말하지 않고 대신, 자유로운 시장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생명 현상을 근거로 시장과 자연의 조직 원리를 등치하는 전략을 취한다. 3장에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신자유주의 통제 사회의 자유 시장 원리에 동조하는 건축의 실천과 담론을 검토하겠다.

36) Chang, Y. (2012). A study on the vitalistic characteristics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8(7), p. 173.

37) Lim(2014, p.175.)은 들뢰즈의 생기론적 철학이 운동과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떠한 진리나 선악의 가치 판단을 유보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변화, 운동, 생성, 탈주의 개념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 견해와도 융화될 수 있다. 이는 들뢰즈의 생기론적 사유를 활용하는 담론을 분석할 때 이면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3.1 통제사회-신자유주의 통치성-포스트 포디즘

“미셸 푸코는 포디스트fordist 양식의 사회 규제에 관한 위대한 이론가였다. 전후 케인스주의 복지국가의 절정기에 글을 쓰면서, 그는 우리에게 심지어 가장 자랑할 만한 업적의 어두운 이면을 보도록 가르쳤다. 그의 눈을 통해 볼 때, 사회 서비스는 규율 장치disciplinary apparatuses가 되었고, 휴머니스트 개혁은 판옵티 감시 체제가 되었고, 공중 보건 조치들은 생권력biopower의 배치가 되었고 치료 관행은 주체 정복의 수단이 되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전후 사회 국가postwar social state의 구성 요소들은 스스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음흉한 규율 지배disciplinary domination의 카르텔 군도를 구성했다.”<sup>38)</sup>

Nancy Fraser(2003)는 “From Discipline to Flexibilization?”에서 포디즘fordism이 지배적인 사회를 푸코의 규율 사회로 해석한다. 그녀에 의하면 포디즘 사회는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1989년 공산주의의 붕괴에 이르는 20세기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등장했다. 포디즘은 좁게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수직 통합된 기업 구조를 가리키지만 그 특징은 경제를 넘어서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의 배치 곳곳에 스며들었다. 그녀가 포디즘을 규율 사회에 대응 시키는 이유는 포디즘을 통한 권력의 작동이 규율 권력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미시적인 레벨에서 사회의 모세혈관까지 타고 들어간 포디즘의 규제 메커니즘은 공장, 병원, 학교 심지어 가정까지 섭렵하며 사회 각 요소를 대량 생산과

38) Fraser, N. (2003). From discipline to flexibilization? Rereading Foucault in the shadow of globalization. *Constellations*, 10(2), p. 160.



대량 소비의 배치로 재구성했다. 대량 생산과 소비 체제에 맞추어 개인들을 조직하고 시간과 공간을 통제해 순응적 신체를 생산하고 그들 사이에 권력을 흐르게 하는 전략은 규율 사회의 권력 작동 메커니즘에 다름 아니다. 비록 푸코가 18-19세기의 전환에 규율 권력이 탄생했음 선언했지만 실제 규율 권력의 작동이 일반화된 규율 사회는 20세기 전후의 포디즘 사회라는 것이 Fraser의 주장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포디즘은 규율 권력과 같이 전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헨리 포드를 위시한 소위 기업 경영가들은 직업 윤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출발한다는 신념을 갖고 가정과 공동체를 기업과 같이 합리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했다. 이 시기에 쏟아져 나온 “아이를 기르기 매뉴얼, 가정 경영, 심리 상담” 등의 전략들은 사회와 가정에서 개인을 충실한 공장의 노동자로 준비시켰다. 2. 포디즘은 국가 틀 안으로 사회적인 것들을 집중시킨다. 이때 국가는 그 이전까지 별개로 존재했던 제도와 기관들을 수렴하는 경계가 된다. 국가가 하나의 규율이 작동하는 거대한 제도가 되는 것이다. 3. 포디즘은 판옵티콘의 죄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감시와 규제의 시선을 내면화한 개인들을 양육해낸다.

Fraser가 이처럼 포디즘을 규율 사회와 동위 개념으로 위치시키는 이유는 포스트 포디즘을 규율 사회를 잇는 후속 모델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에 따르면 포스트 포디즘 체제에서는 자본의 흐름과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경계’의 개념이 해체된다. 예를 들어, 포디즘의 강력했던 작동 범위인 국가는 세계화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유효한 개념이 아니다. 규제 또한 제도적 장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유연하고 유동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행해진다. 그리고 개인은 수동적으로 규제되는 또는 자신을 감시하는 주체가 더 이상 아니다. 인적자본



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주체다. 그는 포스트 포디즘의 유연한 공기가 결코 자유를 의미하지 않고, 단지 다른 모습의 억압적 통제임을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규율 사회-포디즘’의 배열과 ‘통제사회-신자유주의적 통치성-포스트 포디즘’의 배열의 항들은 상호 교환되어 쓰일 수 있을 만큼 각각 비슷한 지점을 묘사한다. 본 고에서 다소 지난한 분석을 거쳐 도출해 낸 두 배열의 항들은 통제 사회 논의를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예를 들어, 건축계에서 활발히 담론을 생산하는 패트릭 슈마허<sup>39)</sup>는 포스트 포디즘과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연구하며 새로운 사회 질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는 건축을 그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물리적 매체로 자리매김<sup>40)</sup>하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공간의 질서가 포스트 포디즘 사회의 유연한 조직과 의사소통 방식의 정착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스트 포디즘 사회가 곧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지배적인 사회이고 또 권력이 은밀하게 작동하는 통제 사회임을 고려한다면 포스트 포디즘 또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를 적극 참고해야한다는 슈마허의 주장은 통제 사회로의 이행에 건축계도 적극 동참하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읽어내기 힘든 이유는 그의 언어가 ‘자기 조직, 창발, 복잡

39) 패트릭 슈마허는 철학과 수학에 지적 배경을 둔 건축가이자 비평가이다. 그는 자하 하디드의 비트라 소방서 설계에 참여하며 건축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하디드의 건축 스튜디오에서 디자인 디렉터로 일하며 하디드의 건축에 이론적 설명을 제공한다. 그의 건축 실천과 이론은 시장 질서를 옹호하고 반영하는 적극성을 띤 것으로 평가된다.

40)

<https://www.stylepark.com/en/news/parametric-architecture-thesis-patrik-schumacher-zaha-hadid-architects>. 2022, 02. 14,



성, 패러미터’ 등 자연적이고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이는 생명 현상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 슈마허는 모더니즘이 “직교성과 분리, 특화, 무한 반복의 원칙” 41)으로 유지되는 질서라면 포스트 포디즘, 즉 현대의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복잡하고 확장 가능하며 “인지적으로 관독 불가” 42)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더 이상 전체로서의 사회적 질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말고(노력한다한들 불가하다) 그저 개입 없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에 몸을 맡기자는 식이다. 그 방법은 자기 조직적이고 창발적인 자연의 법칙과 그것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전제되는 시장의 원리를 과정으로서의 건축에 적극 도입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유추의 기술이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슈마허의 주장과 생성적 사유에 기반한 건축 프로젝트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포스트 포디즘/ 신자유주의 질서와 건축의 담론과 실천을 엮어내는 시도를 검토하고 내포된 통제 사회의 의미를 탐구하도록 한다.

### 3.2 기업의 조직과 공간의 조직

2000년 초반 슈마허는 건축계가 참고해야할 포스트 포디즘 또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최신의 조직과 경영 이론에서 찾는다. 그에게 복잡계 이론을 참조한 조직 이론과 그에 기반한 조직 구조조정 성과는 건축이 적극 벤치마크해야 할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듯 보였을 것이다. 이에 슈마허는 디자인 프로세스가 기업의 조직 원리를 적극 참조할 것을 제안한다. “Spatializing the complexities of contemporary business organization(2005)” 은 Architectural

41) Schumacher, P. (2016). Hegemonic Parametricism Delivers a Market-Based Urban Order. Architectural Design, 86(2). p.121.

42) Schumacher. 앞의 책. p.115



Association 의 Design Research Laboratory에서 이루어진 3년간의 연구 성과를 요약한 단행본, 『Corporate Fields』에 속한 에세이다. 슈마허는 이 3년간의 연구가 “기업조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들에 대한 건축계의 반응” 43)을 담고있다고 소개한다(Schumacher, 2005, p.75). 에세이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에 속한 26 개의 프로젝트들은 현대 비즈니스 조직의 ‘복잡성 complexity’을 공간의 언어로 해석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했다. 사치 갤러리, Ove Arup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 사업에서 건축가들은 기업과 그들의 경영 및 조직 전략을 “공간화 시나리오의 실험적 개발의 출발점” 44)으로 삼았다. 슈마허는 이들 기업에서 도전하고 있는 여러 조직적 실험들이 포스트 포디스트 사회의 혁신적인 작업 패턴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서 “비즈니스 섹터에서 부상하는 이 새로운 조직적 패턴”에 건축계의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일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당연한 작업이라고 주장한다45).

그렇다면 기업이 도전하는 여러 조직적 실험들은 무엇이고, “비즈니스 섹터에서 부상하는 이 새로운 조직적 패턴”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포스트 포디즘의 사회의 지배적 조직 원리인 네트워크network다. 기업은 포디즘 또는 규율 사회의 비효율적인 위계구조에서 벗어나 수평적으로 확장 가능하고 시장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축소 또는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탈바꿈을 시도한다. 네트워크형 조직은 경영 과학에서 드러나는 생기론적 사유라고

---

43) Schumacher, P. (2005). Spatializing the complexities of contemporary business organization. Corporate Fields-New Office Environments. London: AA Publications. p. 75.

44) Schumacher. 앞의 책. p. 74.

45) Schumacher. 앞의 책. p.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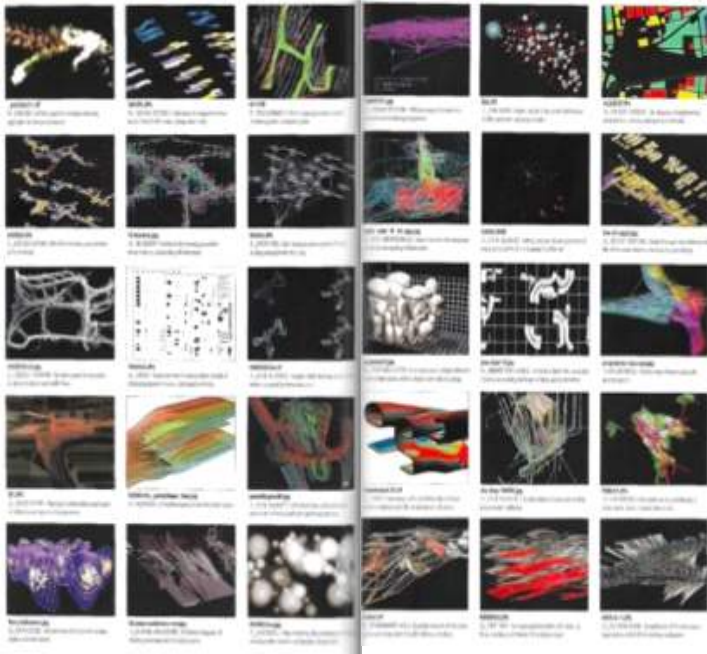
할 수 있다. 조직의 생성 원리를 네트워크 이론에서 참고하며 조직을 살아 움직이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조직은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노드와 노드가 연결하며 또는 때로 끊어지는 생성의 상태다.

건축계가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러한 조직적 실험을 모범 삼아야하는데 슈마허는 비즈니스와 건축의 협동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정당하다고까지 한다. 그 이유는 조직 이론과 건축 실천이 각각 인적 자본과 공간에 대한 조직organization을 다루어 유사하기 때문이다. 조직-경영 과학과 건축의 친화성은 두 영역에서 사용하는 개념적 언어들의 호환성으로 배가된다. 예를 들어, 조직 이론에서 다소 추상적인 조직 관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개념들- “중심/주변, 기능의 영역, 포지션, 반대, 종속, 상호침투 등” 46)-은 공간적 메타포를 함유한다. 만약 건축가가 조직 이론의 풍요로운 개념 창고에서 적절한 개념을 선택해 해석하고 공간적으로 적절히 표현한다면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업과 건축의 공조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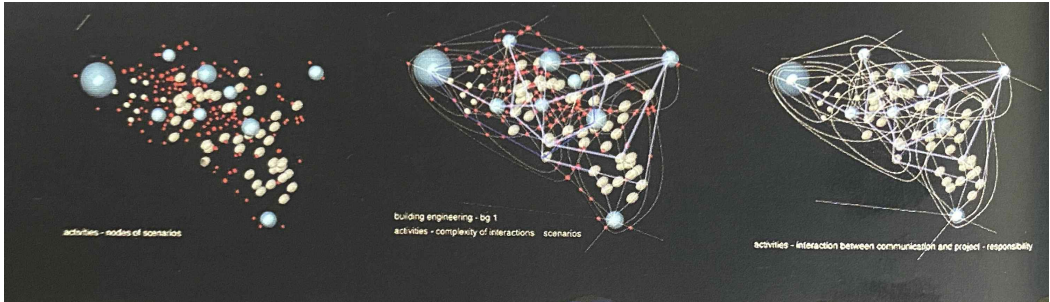
46) Schumacher. 앞의 책. p. 76.





[그림 3-1] 기업의 조직 구조를 건축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한 분석적 다이어그램

『Corporate Fields』의 여러 프로젝트는 그러한 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Ove Arup World Headquarters를 디자인한 프로젝트 CONCAVEXUS는 기업의 조직 패턴을 담을 수 있는 오피스 환경을 제시한다. 디자인 팀은 Ove Arup의 조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프로젝트 팀들의 이동과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추적하고, 그 결과, 고객 기업도 미처 몰랐던 사실을 발견한다: [그림 3-2]의 다이어그램은 기업이 위계적 구조의 조직이 아니라 수많은 노드들이 동일한 위상에서 연결하고 해체하는 네트워크 조직임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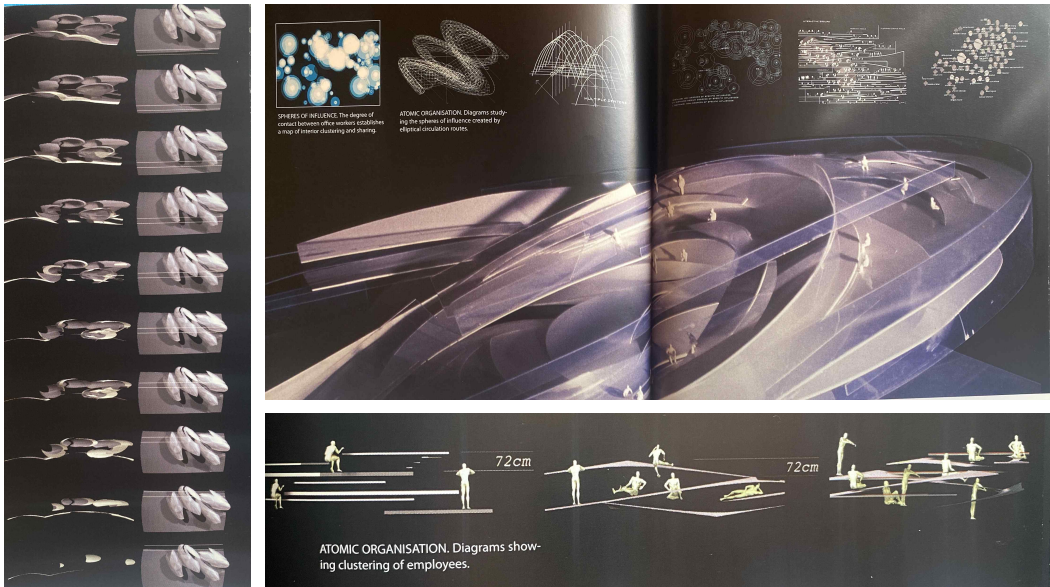
[그림 3-2] 직원과 프로젝트 팀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얻어낸 조직 다이어그램

건축가 그룹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이 네트워크를 최대한 해치지 않으면서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공간의 분할을 최대한 지양한다. 네트워크 전체를 크게 다섯 부분으로 분류하고 각각을 조개 껍질shell 모양의 공간에 배치한다. 하지만 조개 껍질은 사실상 단절 없는 순환 동선<sup>47)</sup>들의 묶음을 포장wrap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간을 분할하는 벽은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연속된 몇 겹의 램프ramp만 있을 뿐이다. 그 중 네 개의 주요한 경로는 몇 군데의 교차지점에서 만나면서 전체의 순환을 돕는다.

직원들의 원활한 만남과 이동을 위한 배려는 가구furniture 단위까지도 적용된다. 층층으로 갈라진delamination 인테리어의 표면은 “바닥에서 계단으로, 계단에서 벤치로, 벤치에서 테이블로, 테이블에서 선반으로, 그리고 다시 계단”으로 연속적으로 변이continuous variation하면서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방해받지 않고 머물거나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한다. 이런 공간 전략이 향하는 지점은 직원들이 어디서든 사업을 도모 할 수 있고 작업에 착수 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인 셈이다.

47) 램프로 표현된 단절 없는 순환 동선은 앞서 살펴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림 3-3] 좌: 동선을 감싸고 있는 다섯 개의 shell.  
 우 첫 번째: 순환 동선의 겹겹으로 이루어진 공간  
 우 두 번째: 직원의 원활한 만남과 이동을 위한 가구 단위의 배려

CONCAVEXUS는 포스트 포디스트의 기업 조직 원리인 네트워크 패턴을 충실히 반영한다.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도 유연하게 축소 확장할 수 있고 어떤 방향이더라도 진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조직에 대해 건축가들은 최소한의 개입을 설정했다. 직원들은 업무, 휴식, 만남, 이동 등 여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입의 비용을 줄이면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기업과 직원이 모두 이득을 보는 전략인데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통제의 장치들에 자유의 향기를 덮어씌우는 전략은 바로 ‘통제 사회-신자유주의 통치성-포스트 포디즘’에서 권력이 채택하는 전형이다. 다시 2장에서 분석했던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특징으로 돌아가보자.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첫째, 경제적 득실에 따라 행동하는 호코 에코노미쿠스를 생산하고 둘째, 그/그

너가 자신의 인적 자본에 끊임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동성있는 상태를 장려한다. 그리고 셋째, 규율 사회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몇 가지 경제적 규칙을 세워주는 식의 간접적이고 환경적인 유형의 개입을 채택한다. 직원들의 동선 그 자체가 굳어져 건축이 된 CONCAVEXUS는 기동성mobility 그 자체가 아닌가. 또 인적 자본의 끝없는 순환을 상징하는 수많은 램프들은 기회를 탐색하고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전사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임을 암시한다. 이제 기업의 직원은 수동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시장을 개척하고 자원 간 연결을 주도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기업가로 거듭나야한다. 자본은 이 거대한 판을 짜고 경쟁이란 규칙을 부여할 뿐이다. 자본의 성장이라는 판의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한 주체에게 자유가 허용된다. 경쟁은 그 자체로 규율과 처벌의 기능을 한다. 즉 효율적이지 않은 판단과 전략은 경쟁에서 도태되고 제거된다. 따라서 주체에게 허용되는 자유란 다름 아닌 경쟁할 수 있는 자유일 뿐이다. 통제 사회의 권력은 이렇게 게임의 틀을 조성하는 환경적 유형의 개입을 통해 주체에 작용한다.

결국 인적자본의 조직을 다루는 기업계와 공간의 조직을 다루는 건축계는 커다란 자유 시장의 질서 안에서 ‘진보’를 위해 상호 참조해야하는 공동체가 된다. 건축의 실천과 담론이 이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자인하고 있는지는 파악 할 수 없으나 수많은 기업 프로젝트들과 탈정치적post-political, 탈비판적 post-critical 담론들은 충분히 시장 친화성을 방증하는 듯하다.

### 3.3 시장 프로세스와 어반 프로세스

슈마허는 복잡한 도시 문명의 질서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방해



받지 않는 시장” 밖에 없다는 시장 지상주의 논리를 펼친다<sup>48)</sup>. 그리고 오직 패러메트릭parametric 디자인의 스타일과 방법론만이 시장의 프로세스와 발맞추어 복잡한 사회 질서를 공간의 질서로 번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소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이 주장의 당위성 또한 복잡계 사유의 유추적 비약<sup>49)</sup>을 통해 확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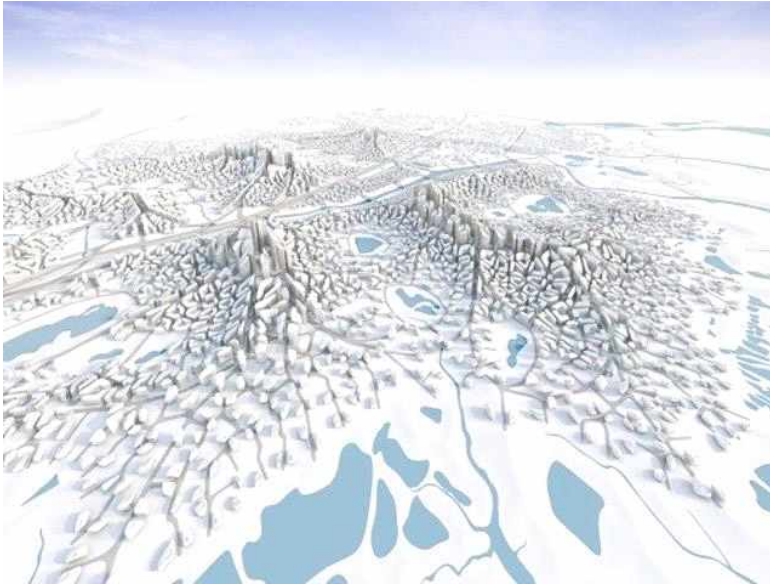
슈마허가 시장의 프로세스로부터 유추해내는 질서는 다름 아닌 도시의 그것이다. 그는 패러메트릭 디자인을 도시적 스케일에 적용하여 복잡계로서의 도시를 설계하고자 한다. 그는 패러메트릭 방법론이 형태 위주의 건축 설계에만 적용된다는 일반적 오해를 비판하며 변수와 알고리즘에 의한 설계가 도시의 사회적 기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대 도시를 주관하는 시장의 질서가 곧 변이, 선택, 재생산을 반복하는 진화적 과정이며 자생적 질서의 균형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안내서라고 믿는다. 그가 제안하는 다중 저자 multi-author 패러메트릭주의는 도시의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공간 조직의 변수로 설정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이다. 그러나 이 역시 들뢰즈가 경계 했던 초제도적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 질서를 형성하는 방법론에

48) Schumacher, P. (2016). Hegemonic parametricism delivers a Market-Based urban order. *Architectural Design*, 86(2). p. 117.

49) “패러메트릭주의<sup>parametricism</sup>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유추를 이끌어내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계획되지 않은 다중 저자<sup>multi-author</sup>의 어바니즘과 다종이 서식하는 생태계는 유사하다. 자연 환경 내의 다양한 특징들과 생물체들이 어우러져 [...] 복잡하고 다채로운 질서를 만드는 방식을 생각해보자(Schumacher, 2016).” 슈마허는 도시 및 건축의 질서를 자연 생태계로부터 추론한다. 도시에 난 길과 그것이 만들어낸 다양한 구역들 그리고 공공 공간 등의 도시 조직이 마치 강의 물줄기가 만들어낸 다양한 크기의 삼각주와 형태가 유사하다는 식의 논리 전개는 잘못된 유추의 오류다. 또한 그는 현상과 당위의 영역 혼동하고 있다. 예컨대, ‘도시의 질서와 자연 생태계의 질서는 유사하다’는 현상 기술은 ‘도시의 질서가 자연 생태계의 질서를 따라야한다’는 당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처럼 도시와 건축의 형태나 조직 원리가 자연 생태계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따라야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자연주의 오류다.



지나지 않는다.



[그림 3-4]Mumbai Expansion, Ursula Frick & Thomas Grabner, Tutor: P. Schumacher

Waldheim(2016)은 시장의 프로세스를 수용하는 도시 프로젝트들이 갖는 공통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랜즈케이프 전략과 생태적 과정에 우위를 두는 어반 프로젝트들은 도시 형태urban form에 대한 작가적 개입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그는 도시 프로젝트를 이끄는 다수의 디자이너들이 생태계의 자율적이고, 비결정적이며 자기 조직적인 모습을 시장 프로세스에서 찾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시도들은 프로젝트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인다는 것이다.

Waldheim은 복잡계 사유를 시장 참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전형적인 획책을 정확하게 짚어낸다. 시장 프로세스는 생태 프로세스와 다르지 않으며 도시 형태urban form가 도시 계획이나 정책 또는 선례로부터 도출되는 인공적인 결과가 아니라 자기 조직적이고

창발적인 생태계로부터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나타나는 자연적 결과라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건축의 담론과 실천에서 신자유주의 통제 권력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이다.

### 3.4 소결

앞서 2장에서 하이에크가 복잡계의 패턴을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모든 영역을 설명하는 통합 모델로 기획한 바 있음을 언급했다. 복잡계의 패턴 다임이 자연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영역에서도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는데 신자유주의 통제 사회의 권력은 그 논리를 이용해 신자유주의 시장의 경쟁 질서를 자연 현상과 동일한 위상에 위치시킨다. 건축계에도 신자유주의 시장의 질서를 자연스런 진리로 받아들이고 건축과 도시의 디자인에 적용시키고자하는 움직임이 있다. 현대 기업의 네트워크 조직이론에서 공간 조직의 원리를 찾아내는 실천과 담론, 그리고 시장의 프로세스에서 도시의 공간 조직 프로세스를 유추해내려는 시도 모두 ‘생명 현상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복잡계 생기론적 사유로부터 출발한다.

건축계는 일찍이 철학과 과학에서의 생기론적 사유와 복잡계 개념을 참조하며 조형 언어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했다<sup>50)</sup>. 이에 대해 3장의 분석은 생기론적 건축 실천과 담론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정치적 함의를 읽어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

50) 들뢰즈의 개념어나 생기론적 사유는 건축계와 비판적으로 관계 맺기보다 형태 생성의 원리로 활용되어 왔다. 생기론적 사유를 디자인의 모티프로 활용한 사례들은 Chang(2012, 2013)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들뢰즈의 노마디즘 개념을 활용해 기존의 고착화된 공간 질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하는 시도들이 건축 담론에 나타나지만 디자인 실천 단계에서는 결국 형태 생성의 원리로 활용된다.



## 제 4장 건축: 통제의 수단 혹은 환경적 유형의 개입

---

- 4.1 규율 사회의 건축과 통제 사회의 건축
- 4.2 매끄러운 공간, 주름, 랜드스케이프
- 4.3 카오스, 복잡계, 자생적 질서, 변수 알고리즘



#### 4. 건축: 통제의 수단 혹은 환경적 유형의 개입

2장에서 검토했듯, 물리적 ‘환경’ 으로서의 건축은 통제와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주요 개입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제목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물에는 “기능상 근본적으로 —그 진정한 본질에 있어서—해방적인 무언가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것은 ‘해방’ 의 층위에 속하고 또 어떤 것은 ‘억압’ 의 층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없다<sup>51)</sup>. 주어진 건축물(또는 공간의 구성)이 해방의 기능을 하는지 또는 통제의 기능을 하는지는 기획, 제도, 실천 등을 포함하는 보다 크고 “복잡한 권력관계의 장” 안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sup>52)</sup>. 자유와 해방에서 주체의 실천을 강조하는 푸코의 입장은 다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것은 ‘해방’ 의 층위에 속하고 또 어떤 것은 ‘억압’ 의 층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제수용소 *concentration camp* 처럼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해방의 도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체계가 얼마나 공포를 부추기든 간에, 어떠한 저항도 사전에 막아버리는 고문과 처형을 제외한다면, 언제나 처학와 불복종, 대항 세력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이는 일반적으로 간과되는데—고려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나는 기능상 근본적으로—그 진정한 본질에 있어서—해방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자유는 실천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이런저런 제약들을 조정하고 더 유연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깨부수고자

51) Foucault, M., and Derfert, D. (2014). *Les Hétérotopies*, translated by Lee, S. G. Seoul: Munji. p. 72.

52) Foucault, M., and Derfert, D. 앞의 책. pp. 67-69.



하는 많은 기획들이 있지만, 이러한 기획 가운데 어떤 것도 단순히 그 본성상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자유를 보장해줄 수는 없으며, 기획 그 자체만으로 자유가 확립되게끔 할 수도 없습니다.”<sup>53)</sup>

위와 같은 푸코의 주의를 고려할 때 Spencer(2012, 2016)가 ‘건축에서의 들뢰즈주의 Architectural Deleuzism’ 를 신자유주의의 통치 수단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푸코의 뿐만 아니라 들뢰즈의 기획에도 어긋난다.<sup>54)</sup> 요컨대 양식적 정의로서의 신자유주의 건축이나 통제 건축은 있을 수 없다. 이번 장에서도 랜드스케이프 건축이란 용어가 편의상 쓰이기는 하지만 통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언제나 공간, 주체, 권력의 구체적인 배치 안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한편, 규율 사회의 건축 공간이 판옵티콘이라는 명확한 원형을 갖는 반면 통제 사회에서 권력이 작용하는 건축 공간의 원형은 제시된 바 없다. 4.1에서는 두 사회의 비교를 통해 규율 사회의 제도적 건축과 비교되는 대립항으로서의 통제 사회 건축을 검토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주체<sup>55)</sup>의 연속과 변이를 가능하게 하는 건축적 조건을 매끄러운 공간과 주름의 개념을 차용하는 건축물을 통해 검토해보도록 한다. 또 환경에서 질서를 파악하고 디자인의 원리로 삼는 건축물을 통해 자유 시장의 질서에 순응하는 사례를 살펴보겠

53) Foucault. 앞의 책. p. 72.

54) 들뢰즈 또한 주체의 자유는 오직 실천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다. 『천의 고원』의 “14장. 매끄러운 것과 흠 패인 것”에서 그는 “매끄러운 공간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55) 2장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통제 사회에서의 주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경제적 행동양식에 따라 행동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주체의 모델로 삼고 생산하고자 한다. 통제 사회에서 주체가 학생, 노동자, 환자 등의 고정된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제도를 초월한 시장의 질서가 이득과 손실의 판단에 따라 행동과 태도를 달리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개인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

#### 4.1 규율 사회의 건축과 통제 사회의 건축

2.1 에서도 간단히 서술하였듯, 규율 사회와 통제 사회는 비교와 대조를 통해 그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푸코는 규율 사회의 공간적 특징에 대해 명시적으로 분석하였다. 규율 사회는 규율 권력의 작동이 일반화된 사회를 말한다. 규율 권력은 각 개인을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구속시킴으로서 작동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은 50분의 수업 시간에는 교실에, 10분의 쉬는 시간에는 복도나 화장실에, 점심 시간에는 식당에, 그리고 특정 시간에는 운동장에 구속됨으로서 규율 권력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각각의 시·공간에서는 특정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기대되기 때문에 시간, 공간, 규칙은 개인을 훈육 discipline하는 도구의 가장 기본적인 변수가 된다. 쪼개어진 공간과 잘게 나뉜 시간 안에서 훈육하는 권력은 위계적인 감시를 사용해 대상의 행동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정상적인’ 규칙에 의해 평가한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행동은 처벌함으로서 규범화(normalized)된 신체<sup>56)</sup>를 생산한다. 푸코는 규율 권력의 메커니즘을 상세한 후 제레미 벤담이 설계한 판옵티콘 감옥 체계가 그러한 메커니즘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일망감시 구조는 위계적 감시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훈육과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개별 셀로 분할된 공간에서 엄격한 일과에 의해 관리되는 죄수는 기록, 평가, 처벌의 반복에 의해 순종적인 신체로 거듭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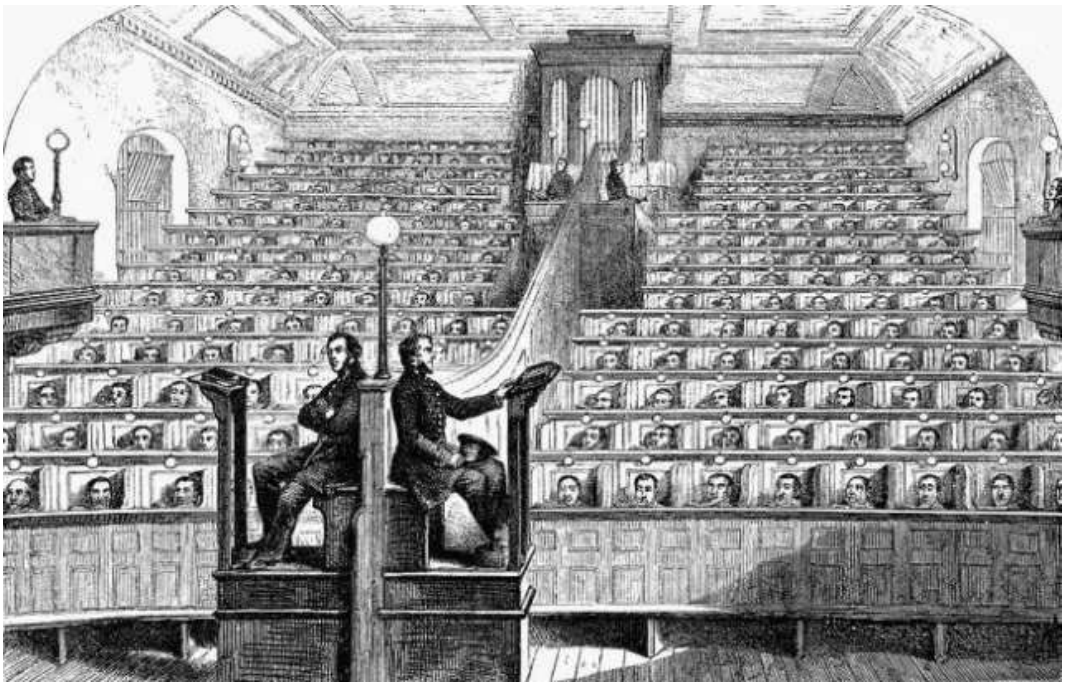
근대 규율 권력은 판옵티콘의 모델을 작업장, 병원, 학교, 병영, 감옥, 심지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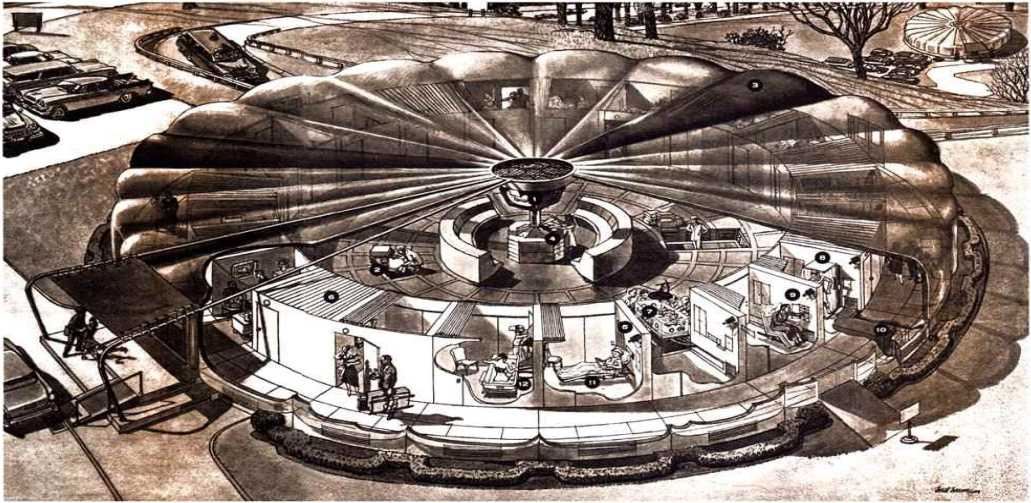
56) 푸코는 규율 권력이 행사되는 대상을 ‘신체’라는 용어로 묘사한다. 주체나 개인에 비해 수동적인 의미의 신체에는 푸코가 ‘주체’라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있던 회의가 함축되어있다.



가정에까지도 적용한다. 노동자, 환자, 학생, 군인, 죄수, 가정의 자녀는 규율 권력에 의해 생산된 권력 순종적 신체에 다름 아닌 것이다. 통제 권력과의 비교를 통해 더 명확해지겠지만 규율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은 사회 기관 혹은 제도 별로 분절되고 그 경계가 명확하다. 학교의 규칙은 교실 안에서만 유효하고 작업장의 규칙은 공장 안에서만 적용된다. 뚜렷한 경계 안에서의 구속. 이것이 통제 사회의 권력과 비교한 규율 권력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 판옵티콘 모델이 적용된 교실의 모습



Your key to the Hospital of Tomorrow: 1. Revolving TV screen, 2. Storage, 3. Plastic double-shell roofs can be filled with colored gas to filter sunlight, 4. Underground cabot sterilizers, 5. TV monitors

for each room, 6. Accordion slide-back ceilings, 7. Sterile polyethylene operating bag, 8. Bed in shower position, 9. Radiant heater for pre-packaged meals and refrigerator unit, 10. Ultra-violet air purifier and intake for each room, 11. Bed in reading position, 12. Bath in plexiglass disposable tub

[그림 4-2] 판옵티콘 모델이 적용된 병원 계획

통제 권력이 작동하는 건축은 규율 권력의 그것과 비교하여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분류하기 어렵다. 통제 사회에서는 제도를 초월하는 신자유주의 시장의 논리가 제도와 공간의 경계를 적극 해체하기 때문에 제도와 건축의 일대일 대응이 성립하지 않는다. 들뢰즈는 이렇게 구분이 흐려진 통제 사회에서는 끊임 없는 교육의 과정(perpetual training)이 학교를 대체하고 연속적인 통제(continuous control)가 평가를 대체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통제 사회에서 개인은 어떠한 제도도 졸업하지 못하고 학생, 노동자, 환자, 군인, 죄수 등등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살아가야한다:

“실제로 기업이 공장을 대체하는 것처럼 영구적인 교육이 학교를 대체하고, 지속적인 통제가 시험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학교를 회사에 갖다 바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규율 사회에서 개인은 언제나 다시 시작(학교에서 병영으로, 병영에서 공장에 이르기까지)하는 반면,

통제 사회에서는 그 어떤 것과도 끝나지 않는다. 기업, 교육 시스템, 군  
복무는 보편적 시스템처럼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변조<sup>modulation</sup> 안에 공존  
한다” 57)

“서로 다른 제도가 하나의 동일한 변조 안에 공존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족, 학교, 군대, 공장이 더 이상 구분되는 유비적인 공간”이 아니  
라는 뜻이다. 여러 제도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 변형될 수 있는 코드화된 숫자  
일 뿐이고 따라서 제도에 따른 공간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진다. 오히려 기업  
의 논리가 방해받지 않고 상시 침투할 수 있도록 벽을 허물어야 한다. 개인  
individual은 데이터data단위로 쪼개져dividual 각종 시스템에 기록되며 감시된  
다. 규율 권력이 기록, 평가, 처벌 등의 재래적 감시 체제에 의존했다면 통제  
사회의 권력은 그 기능들을 전자적 감시 장치와 정보 수집 기술에 대부분 이  
양한다. 이러한 기술 발전 또한 판옵티콘 모델이 건축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필  
요성을 제거한다.

판옵티콘과 같이 뚜렷한 건축 원형이 제시되지 않은 통제 사회에서 권력이 작  
동하는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비평은 쉽지 않다. 주어진 단서는 열린<sup>open</sup>, 연  
속된<sup>continuous</sup>, 변형하는<sup>transforming/deforming</sup> 과 같은 공간에 대한 수식어뿐이다.  
그렇지만 수식어들은 단순한 형용사가 아니다. 열린, 연속된, 변형하는 등의  
수사는 통제 사회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적 배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집어  
낸다. 통제 사회의 공간은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전파하는 권력의 요구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그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의 질서가 곧 관

---

57) Deleuze, G. (1992).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 *October*, 59, p. 5.



리의 규칙이 되는 공간에서는 수익을 일으키는 만남과 사건이 장려된다. 이때 건축 공간은 이러한 사건들을 배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구분되고 경직된 근대적 공간의 분절은 넓은 스펙트럼의 이벤트를 품을 수 없다. 자본의 성장과 변태, 그리고 진화에 발맞출 수 있는 공간은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변이를 일으키고 접혔다 펼쳐졌다를 반복하는 주름과 같은 유연한 공간일 것이다. 요컨대, 끊임없이 성장해야하는 자본은 진화, 생성, 과정을 특징으로하는 생기론적 건축과 공명하며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또는 통제 권력이 작동하는 환경을 생산한다.

다음의 두 절에서는 생성의 사유가 디자인의 원리가 된 건축물과 도시 계획 사례를 통해 공간, 주체, 권력, 자본 등의 변수가 어떻게 배치를 형성하며 작동하는지 분석한다. 장용순(2012)은 생성적 사유에 기초한 건축과 도시계획을 분석함에 있어서 “증감, 생성, 과정, 진화, 시간성,” “프로그램, 사건, 비물질성, 잠재성,” “프랙탈, 자기 조직화, 창발성,” “환경, 랜드스케이프, 미분적 연속성, 주름,” 그리고 “생물학적 구조, 표피”의 다섯 분류를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위의 구분들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하나의 사례에서 진화, 사건, 랜드스케이프 등의 개념을 동시에 확인 할 수도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매끄러운 공간, 주름, 랜드스케이프,” 와 “카오스, 복잡계, 자생적 질서, 변수 알고리즘”으로 사례를 크게 분류하고 각 사례를 어떻게 통제/통치성의 환경적 유형의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와 공간이 생산하는 주체성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겠다.

## 4.2 매끄러운 공간, 주름, 랜드스케이프Landscape



통제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은 연속적이고 개방적이다. 주체는 경계 없이 이어지는 공간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상황에 맞게 노동, 소비, 여가 등의 활동을 선택한다. 매끄러운 공간이나 주름은 들뢰즈의 대표적인 생기론적 개념이기에 그 개념에 기반한 건축 설계를 생기론적 사유가 적용된 건축이라고 무리 없이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연속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랜드스케이프 건축도 생기론적 사유가 드러난 대표적인 건축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인공 대지와 같은 건축 공간이 한편으로는 사건이나 행위를 만들어내는 잠재적인 장으로 작동(Chang, 2012, p.182)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건축 요소인 벽, 바닥, 천장의 경계를 해체하여 흙 패인 공간에서 매끄러운 공간으로 나아가는 가능성(Lim, 2016, p.141)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절에서는 건축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공 대지나 매끄러운 공간, 주름등의 사유가 통제 메커니즘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건축물의 공간이 생산하는 주체의 특징을 분석하도록 한다.

#### 4.2.1 Villa VPRO

##### 1) 개요

Villa VPRO는 1997년에 실현된 MVRDV의 최초 프로젝트다. VPRO Public Broadcasting Corporation의 본사옥으로 설계된 이 오피스는 원래 13개의 동 villa으로 배치되었던 본사의 전체 공간을 하나의 빌딩으로 옮겨 담아야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MVRDV는 기업의 기존 비즈니스와 공간을 분석해, TV 부문, 라디오 부문, 스튜디오, 경영 및 인사 등 총 8개의 프로그램을 도출했고 이들을 각각 오피스 공간, 오피스가 아닌 공간, 그리고 공용 공간의 세 클러스터에 분배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공간의 형태를 결정짓는



주요 인자가 아니다. 오히려 이미 큰 틀에서, 공간은 적층된 커로서 또는 인공 대지로서 구현될 것이 정해졌고, 프로그램은 바닥판에 변형을 가하거나 보이 드를 추가하는 논리로서 제시된다.



[그림 4-3] Villa VPRO

## 2) 가동성

건축물이 주체에게 풍부한 이동의 옵션을 보장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공간 분할의 제약을 거두는 것이다. 공간의 단절을 극복하는 데에는 문을 내는 소극적인 접근도 있고 아예, 벽을 없애는 적극적인 접근도 있다. 그리고 수직보다는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전략도 공간 분할을 넘어서 이용자의 기동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벽 없는 공간의 수평적 확장. 그것은 랜드스케이프를 모방하는 건축의 특징이자 Villa VPRO의 핵심을 설명하는 구절이다.

MVRDV의 Villa VPRO는 “전통적인 세포적cellular 사무 환경”에 이별을 고하는 작품으로 고안되었다<sup>58)</sup>. 비니 마스Winy Maas의 애초 계획은 빌딩의 파

58)

<http://archis.org/volume/de-architectuur-van-het-interieur-architecture-of-the-inte>

사드까지 제거하고 오직 여섯 겹의 주름진<sup>folded</sup> 바닥판으로만 공간을 구성하는 것<sup>59)</sup>이었다. 단순히 개방감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서 넘어서 외벽도 제거한 채 대지의 일부처럼 남아있으려는 애초의 디자인은 건축물의 내·외부 경계를 적극적으로 해체해서 공간으로의 출입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려는 의도를 담았다. 결국 hot-air screen으로 외벽을 대신하려했던 원안은 채택되지 못했지만 외관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말려 올라가거나 접힌 바닥판과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계단은 공간을 분할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잇는 역할을 한다.



[그림 4-4] Villa VPRO의 내부 전경과 중첩된 판

Villa VPRO의 인공 대지와 같은 환경은 건축물 내·외의 물리적, 심리적 경계를 흐림으로서 이동의 장애를 제거한다. 그런데 내부 공간에서 이동의 옵션은 단순히 자유로운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주는 정도로 불어난

rior-mvrdv-villa-vpro/. 2022. 02. 02.

59) 정확히 말하면 파사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Hot-air screen 으로 벽을 대체하려는 계획이었으나 기술과 비용의 문제로 좌절되었다.



다. Vreeburg(1997)은 이를 두고 미로와 같은 환경이라고 말한다. 이용자는 정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곳으로 뺏어나가는 시선의 축 때문에 즉시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 오히려 시선의 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적절한 이 공간에서는 방향의 위계에 대한 어떠한 실마리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공간을 부유하게 된다. 관습적인 감각이 공간에 대한 인지를 도울 수 없을 때, 주체는 공간 전체를 구석구석 방황할 수 밖에 없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좁은 통로나 교차점, 그리고 숨겨진 계단” 등은 전체 공간에 대한 파악을 갈망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계속 이동하고 방황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동은 보장되지 않고 강제된다.

### 3) 생산되는 주체성

여러 레벨의 높낮이를 굽이치는 실내의 바닥판을 타고 노동자는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매끄럽게 이행<sup>transition</sup>60)” 한다. 마치 액체에서 기체로 물체의 상태가 전이<sup>transition</sup>되듯 노동자는 옥상 테라스에서 휴식을 하다가도 자리에 돌아와 자연스럽게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나 제약이 적은 환경은 휴식과 노동의 경계를 해체한다. 주체는 사무실이란 전통적 공간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지만 중단 없는 생산성의 장애 구속된다.

또한 어떤 방향도 지시하지 않는 실내 공간은 분명 혼란스러운 경험이지만 “예견치 못한 만남과 최대한의 커뮤니케이션” 61)을 즐기며 마치 서핑하듯 공

60)

<http://archis.org/volume/de-architectuur-van-het-interieur-architecture-of-the-interior-mvrdv-villa-vpro/>. 2022. 02. 02.

61)



간을 이동하도록 주문한다.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적응하고 살아남는 기업처럼 공간은 개인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유연하게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건축은 매끄럽고 주름진 공간에서의 개입을 통해 우연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고 모든 만남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을 생산한다.

#### 4) 환경적 유형의 개입

종합적으로 볼 때, Villa VPRO가 통제 사회의 환경적 유형의 개입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적이고 방향성 없는 공간에서 주체가 끝없이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이동 중에 있는 주체들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지식을 생산하고 사업을 도모하는 기업가로 거듭나도록 이끈다. 셋째, 노동과 휴식 공간의 경계를 해체해 주체를 끊임없는 생산성의 장에 구속시킨다.

건축 공간이 환경적 유형의 개입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건축물의 내재적인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메커니즘 전체의 배치를 이루는 비즈니스의 목적, 기업의 문화, 건축가의 의도, 건축의 외부, 이용하는 주체 등의 관계에 의해서다. 공간을 행위와 사건의 잠재적인 장으로 설정하는 건축가의 전략, 인공 대지처럼 구현된 공간, 유연한 조직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자하는 기업의 의도, 공간을 부유하는 주체의 배치가 권력의 통제 효과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 4.2.2 Rolex Learning Center

---

<http://archis.org/volume/de-architectuur-van-het-interieur-architecture-of-the-interior-mvrdv-villa-vpro/>. 2022. 02. 02.



## 1) 개요

Rolex Learning Center는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EPFL]의 캠퍼스 허브로 기획된 복합 공간이다. 2010년 SANAA에 의해 실현되었으며 20,200m<sup>2</sup>의 대지에 넓게 펼쳐진 판과 같은 건축물은 전형적으로 건축 안에 인공 대지를 구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을 도서관이나 교실 또는 학생 회관처럼 전통적인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이유는 공간이 담는 프로그램들이 전통적인 대학교 캠퍼스의 문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공간은 ‘러닝센터’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이질적인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데 카페, 레스토랑, 은행, 출판사, 서점, 사무실, 도서관, 학생 협업 공간이 그것들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캠퍼스 내의 학생뿐만 아니라 캠퍼스 외부의 공중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다. 요컨대, Rolex Learning Center는 계층 간 경계, 학제 간 경계, 산학 간 경계, 캠퍼스 내외간 경계를 해체하는 대학 경영진의 야심찬 기획의 상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건축주의 요구가 ‘학제 간 경계를 해체할 것과 만남과 교류를 증진할 것’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제출된 12개의 경쟁안 중 “오브제형 건축”<sup>62)</sup>은 본질적인 한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변과 구별되는 건축물만의 “인지적 독립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 맥락과의 관계, 요소들의 배치와 연결을 주요하게 고민한 “네트워크형 건축”이 당선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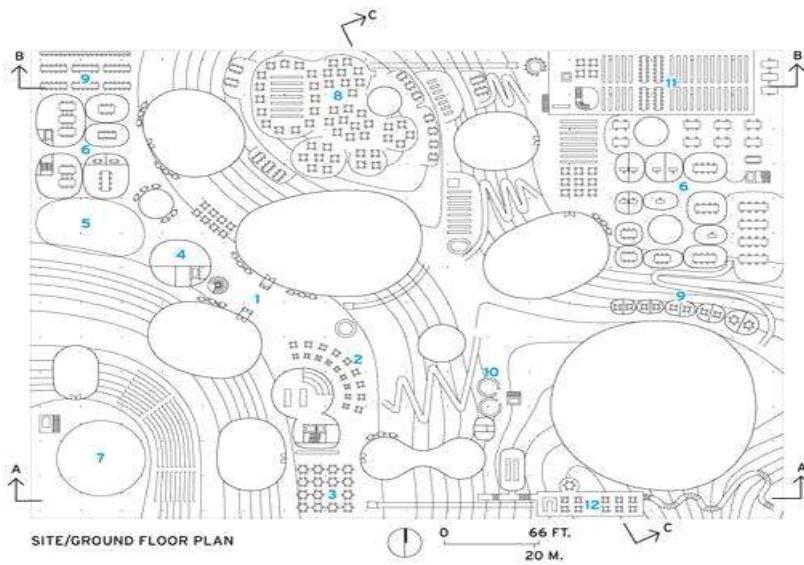
62) 박종진 & 남성택 (2013)은 12개의 제출안을 크게 “오브제형 건축”과 “네트워크형 건축”으로 분류하고 특징을 분석한다. 12개 설계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하라: 박종진, & 남성택. (2013). EPFL 롤렉스 러닝센터에 대한 연구: 건축 개념의 배경부터 실현에 이르기까지.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9(5), 49-58.



이어지는 절에서는 관계와 연결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SANAA의 설계에서 해결되는지 검토하고 가동성을 확보하는 건축적 장치, 공간과 권력의 배치가 생산하는 주체 효과를 탐구하도록 한다.



[그림 4-5] Rolex Learning Center의 조감도



- |                 |                             |                        |
|-----------------|-----------------------------|------------------------|
| 1 Main entrance | 6 Offices                   | 11 Research collection |
| 2 Café          | 7 Multipurpose hall         | 12 Restaurant          |
| 3 Food court    | 8 Library                   | 13 Parking             |
| 4 Bank          | 9 Work area                 | 14 Storage             |
| 5 Bookshop      | 10 Ancient books collection | 15 Mechanical          |

[그림 4-6] Rolex Learning Center 평면과 프로그램 배치도

## 2) 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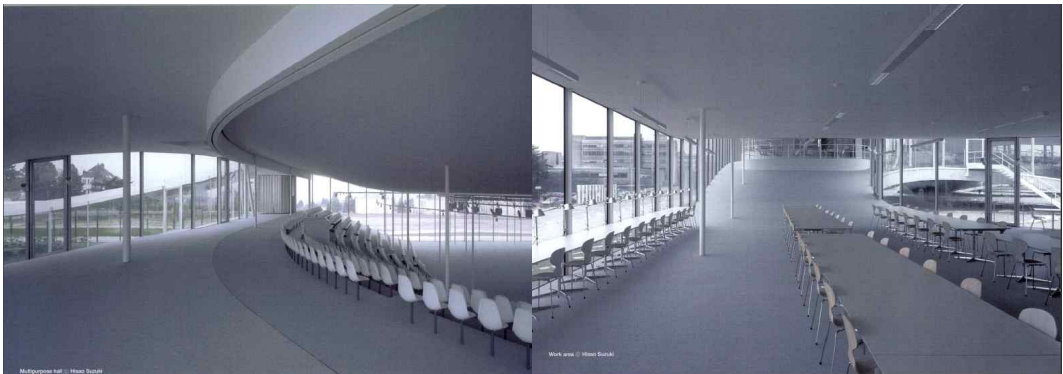
Rolex Learning Center가 주체의 이동을 보장하는 방법은 Villa VPRO와 유사하다. 벽으로 공간을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출렁이는 바닥판이 높낮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며 소극적으로 공간을 구획한다. SANAA가 구현한 이 공간은 하나의 레벨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층의 요소가 도입된 Villa VPRO 보다도 적극적으로 인공 대지 개념이 나타난다.

Villa VPRO와 마찬가지로 사방으로 뻗치는 시선의 축을 갖는 실내 공간은 공간에 들어섬과 동시에 즉시 그 위계를 찾으려는 관습적인 감각에 도전한다. 그러나 사방의 입면을 유리로 처리해서 확보한 시선의 투과는 주변 지형과 건물에서 방향 설정에 필요한 참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Rolex Learning Center에서의 이동은 미로 속을 찾아 헤매는 듯한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물리적 구분 아래 공존하는 이질적인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이용자들의 마주침과 연결을 극대화하는 기능을 한다. 만남을 갖는 이용자들은 경사면에 빈 백bean bag을 이리저리 자유롭게 배치하여 즉석으로 토론장을 만들기도 한다. 벽과 문을 제거함으로써 이동의 옵션은 최대한으로 제공되며 머물 수 있는 기회도 똑같이 내어주는 이 공간은 가동성mobility과 연결connection을 모두 달성한다.





[그림 4-7] Rolex Learning Center 내·외부를 가로지르는 시선: 이용자는 공간 외부의 지형, 지물이나 건물을 참조해 방향 감각을 획득한다.



[그림 4-8] 최소한의 물리적 구분과 이질적 프로그램의 공존

그러나 벽의 부재만이 이동을 유발하는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동의 충분조건일 뿐이다. Rolex Learning Center의 내부 공간은 투명함이 특징적이다. “버블bubble” 이라고 불리는 미팅룸은 공용 공간으로서는 유일하게 닫힌 enclosed 공간이다. 그러나 그나마도 유리로 에워싸여 시각적으로는 개방된다. 투명하고 개방된 공간에서는 이용자가 끝없이 시·청각적인 자극에 노출되는데 이때, 흥미로운 자극은 이동의 유인이 된다.



[그림 4-9] 유리로  
애워싸인 협업 공간  
bubble

### 3) 생산되는 주체성

SANAA의 Rolex Learning Center도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을 생산하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대표적인 예시다. 이 건축 공간이 생산하고자 하는 주체는 규율 사회의 학생이 아니다. 학생들은 지식의 생산뿐만 아니라 지식을 자본화하고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기업가<sup>entrepreneur</sup>로서의 주체성도 요구 받는다. 앞서 분석 했던 MVRDV의 Villa Vpro와 같이 매끄럽고 개방된 공간에서 주체는 마주치는 상대(동료 학생이나 외부의 기업가)와 처한 상황에 따라 학습과 업무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도록 훈련된다. 들뢰즈는 통제 사회에서 점차 학습과 업무 공간의 경계가 해체되고 뒤섞이는 경향을 두고 두 행위 간 구분은 없어지고 영속적인 통제와 감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sup>63)</sup> “직장인-학생 worker-schoolkid” 또는 “관료-학생 bureaucrat-student”은 그러한 권력의 작동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유형의 주체다.

63) Deleuze, G. (1995). *Negotiations, 1972-1990*. Columbia University Press. p.175.

#### 4) 환경적 유형의 개입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의 허브로 기획된 이 공간은 도서관, 학생 협업 공간, 사무실, 식당, 카페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단 하나의 층에서 모두 수용한다<sup>64)</sup>. 경계 없는 공간이 이질적인 프로그램을 담도록한 설계는 EPFL의 더 큰 비전과 관련있다. 2010년 당시 총장 Patrik Aebischer는 학제로 구분된 전통적인 경계를 허물고 과학적 영감과 협동의 정신이 예기치 못한 만남과 사건에서 자유롭게 창발할 수 있는 대학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PFL의 캠퍼스는 장차 산학협력을 위한 리서치 센터, 외부 방문객을 위한 4성급 호텔, 그리고 창업가 학생들을 지원하는 Innovation Park 등을 Rolex Learning Center 주위에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건축물은 연구기관, 관광지, 기업으로서의 캠퍼스에서 유연하게 허브역할을 수행하게된다. 다양한 분과의 학생들, 학생과 기업가의 만남을 주선하는 집적 기능을 하도록 계획된 것이다.

이 맥락에서 볼 때, SANAA가 Rolex Learning Center를 최초에, 프로그램 별로 분절된 고층의 타워로 설계했다가 만남이 더 빈번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으로 변경한 사실<sup>65)</sup>은 비판적 주의를 요한다. SANAA는 건축주의 요구대로 다양한 학제와 학교 내외부의 만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개방적이고 연속된 인공 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더해, 오피스를 제외한 모든 공간의 흐린 경계와 최소한의 구분, 시각적 연결

64) <https://www.architecturalrecord.com/articles/8237-rolex-learning-center-by-sanaa>. 2022. 05. 12.

65) <https://www.epfl.ch/campus/visitors/wp-content/uploads/2019/02/ENGLISH-Kit2012.pdf>. 2022. 05. 10.





성을 고려한 유리 외벽, 버블이라는 이름의 협업 스페이스 등은 모두 최대한의 연결성과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 장치들이다. 직접적으로 행동을 규율하지 않으면서 건축적 장치를 통해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술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통치술이다.



### 4.3 카오스, 복잡계, 자생적 질서, 변수 알고리즘

카오스와 같은 상태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질서는 도시와 같은 복잡한 환경을 해독해야하는 건축가들에게 매력적인 디자인 원리로 이해되었다. 무관해 보이는 현상들 속에서 질서의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 그 불확정성을 인정하고 관계 안에서 질서가 스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배경을 조성하는 전략이 채택된다.

#### 4.3.1 플뤽-세나르 도시계획Melun-Sénart Urban Plan

##### 1) 개요

렘 콜하스는 현대 도시의 불확정성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혼돈스러워 보이는 현상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하는 도시관을 플뤽-세나르 도시계획<sup>Melun-Sénart Urban Plan</sup>을 통해 드러낸다(Chang, 2013, p.152.). 그는 인위적 질서를 부여하고 건축물들로 도시공간을 매우는 관습적 건축가들과 도시계획가들을 비판하며 계획되지 않은 비워진 공간의 축을 계획의 중심으로 내세운다.

##### 2) 가동성

도시 스케일에서 가동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앞서 Villa VPRO와 Rolex Learning Center를 통해서 건축 공간에서 가동성이 장려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매끄럽고 개방되고 연속된 대지와 같은 공간에서 주체는 최대한의 이동 옵션을 보장 받았다. 주체가 다름 아닌 인적 자본이고 이동이 투자라는 사실은 ‘통제 사회-신자유주의 통치성-포스트 포디즘’이 환경적 유형의 개입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배경으로서 건축 공간을 이해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동이 곧 자본에의 투자라는 등식은 도시 스케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시에서 자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말은 도시의 규제가 자본 순환을 막지 않는다는 뜻이다. 콜하스가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도시의 카오스라고 칭했던 현상도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순환하고 성장하는 자본의 물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우리가 미친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감히 지성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보이드의 띠들로 틀지워진 “섬island”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만큼은 도시의 카오스 같은 성장을 용인할 것을 제안한다:

*“비어진 밴드void Bands와는 대조적으로, 섬들islands은 통제 불능의 도시의 성장에 굴복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건축가, 다른 스타일, 다른 체제, 다른 이념을 수용합니다. [...] 그들은 강도 또는 지루함, 밀도 또는 희소성(Koolhaas, Surrender, 983)”을 수용하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및 사이트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다. “66)*

바꿔 말하면 섬 안에서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는 요소는 전무하다. 둘러싸인 프로그램의 밴드로 인해 최소한의 방향성이 제안되는 것을 제외하면 자본은 섬안에서 또는 섬 사이를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다.

### 3) 환경적 유형의 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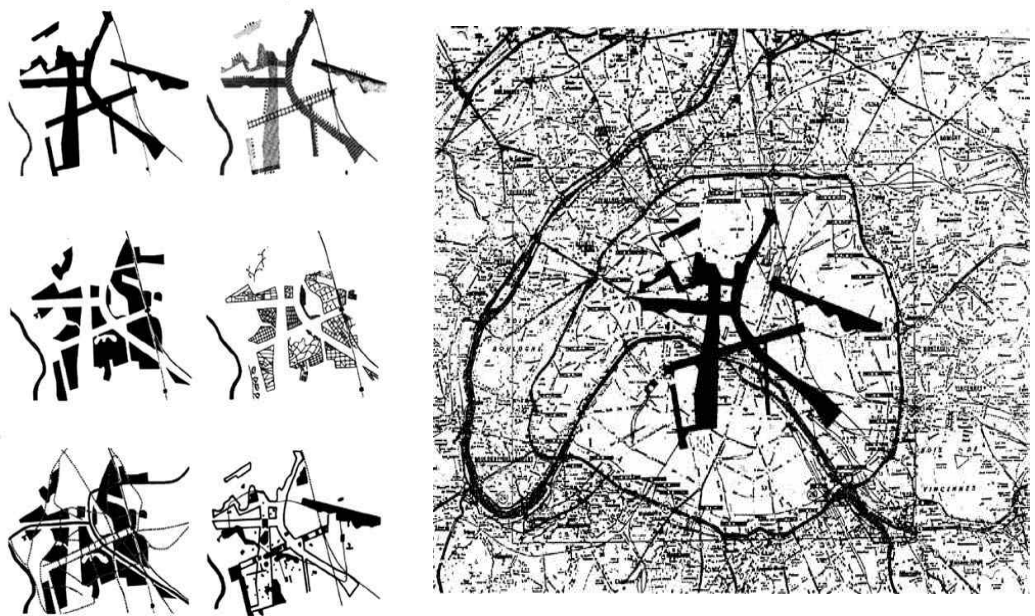
비워진 공간으로서의 프로그램 띠, 즉 보이드 밴드는 디자이너나 도시계획가가 인지할 수 없는 도시의 복잡한 질서를 수용하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한다. 보이드는 도시의 무한한 잠재적 사건들을 가능하게하는 장으로서 기능하며 프

---

66) Böck, I. (2015). Six Canonical Projects by Rem Koolhaas: Essays on the History of Ideas (p. 370). jovis Verlag. p.94.



로그래의 띠들에 의해 조각난 도시의 “섬” 들은 도시의 혼돈스러운 질서를 수용하며 제한 없이 진화하는 공간이 된다. 플링-세나르 도시 계획은 일견 근대적 그리드와 세밀한 계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그러나 개입의 의지에 대한 반납 혹은 총체적 질서의 이해에 대한 반납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시장의 질서에 따라 도시의 공간 구조가 재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이에크가 문명의 진보를 위해 요구했던 탈비판적 태도와 진화를 위한 우연한 사건을 허용하는 장은 생성적 사유에 기반한 콜하스의 도시관과 공명한다.



[그림 4-10] Melun-Sénart Urban Plan, OMA

#### 4.3.2 Yokohama Port Terminal

콜하스가 도시의 혼돈의 긍정하며 보이드의 전략을 도출했다면 다수의 건축가들은 복잡계의 원리에서 솔리드의 전략을 추론해낸다.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는 일리아 프리고진의 작업을 참조하면서 물질에 내재한 자기 조직화와 창

발 같은 역량을 현대의 복잡한 도시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업 자본은 역동적 도시 환경에서 공공공간과 사유공간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며 도시의 복잡성에서 스스로 질서를 드러내보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sup>67)</sup>.

## 1) 개요

요코하마 부두 터미널은 2002 년, Foreign Office Architects(FOA)에 의해 실현된 건축물이다. 무려 660개의 경쟁안 중 채택된 FOA의 설계는 당시로서는 선보이기 어려웠던 형태의 디자인을 최신의 컴퓨터 기술의 도움을 받아 선보였다. 결과물로서의 형태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디자인 원리와 진화 과정을 이해하면 이 또한 통제 사회의 환경적 유형의 개입으로 해석될 의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건축물은 주차장, 사무실, 매점, 관세 당국, 이민 당국, 레스토랑, 쇼핑, 대기실 등의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 2) 가동성

요코하마 부두 터미널Yokohama Pier Terminal(1995)은 도시의 복잡성에서 드러나는 순환의 자생적 질서<sup>68)</sup>를 공간 조직의 원리로 채택한 FOA<sup>69)</sup>의 대표적 프로젝트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순환 동선이 공간을 조직한다. 공간은 도시와 페리 사이에서 어느 곳으로도 움직임을 유도하지 않고 이용자가 공간 자체에 머물면서 부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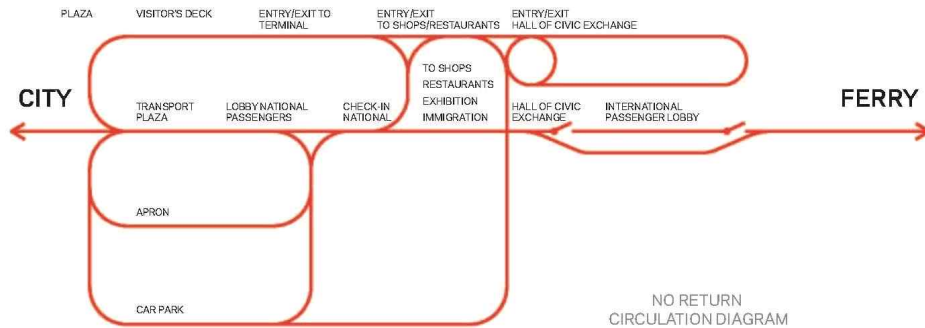
67) Spencer. 앞의 책. p.64.

68) 70년대에는 순환이 조직되고 건축물이 그 위에 배치되었다면 요코하마 부두 터미널 프로젝트는 순환 그 자체가 공간을 형성하도록하는 발전된 방법론을 채택한다.

69) Foreign Office Architects는 당시 자에라 폴로와 파시드 모싸비Farshid Moussavi의 파트너십 스튜디오다. 2009년 해체되었다.



지로 이동을 방해하는 벽이 없음은 당연하고 계단의 사용도 지양되었다. 공간의 수직적 차이를 극복하는 장치는 오직 곡선형의 램프ramp 뿐이다.



[그림 4-11] Yokohama Port Terminal의 순환동선

건축물이 애초에 여객 터미널로 계획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객 터미널은 분명 이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도시 간 그리고 지역 간 이동이 여객 터미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통 편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대중에게는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가야할 곳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공공에 배타적인 장소다. Yokohama Port Terminal은 이 같은 전형적인 여객 터미널의 단점을 극복한다. 주변의 야마시타 공원과 아카라네가 공원과 연계하여 누구에게도 접근 가능한 도시 공원을 만들어낸다.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과 도시의 순환circulation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그물망의 적절한 위치에 노드로서의 건축물을 추가하는 FOA의 직관적 접근은 함께 어우러져 이동의 옵션을 배가한다.



[그림 4-12] 도시의  
공원으로서 기능하는  
조망 데크

### 3) 환경적 유형의 개입

FOA가 디자인 방법론으로 채택한 복잡한 컴퓨터 알고리즘은 일련의 환경과 프로그램적 요구들을 변수로 설정하고 데이터 가공해서 결과로서의 형태를 생산해낸다. 건축물은 도시 질서의 형태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건축가는 디자인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거리를 두며<sup>70)</sup>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전면으로 내세운다. 그 결과, 건축물은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의 위상을 갖게 된다.

하지만 자에라 폴로의 주장처럼 복잡계에서 자생적 질서를 찾아내려는 시도와 연관된 건축 실천을 진보와 해방의 가치와 연결시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진보의 가능성은 주어진 패러다임을 전복할 수 있는 힘에 있다. 그러나 복잡

70) Waldheim, C. (2016) Landscape as Urbanism: A General The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32-41.

계 패턴이나 자기 조직화의 원리를 해석하는 데에 몰두한 현대 건축의 본 갈래는 자유 시장과 그 질서가 침투한 사회의 외부는 상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유 시장으로 표상되는 주어진 환경에서 상수와 변수를 설정하고 최적해를 찾는 것이 진리의 추구라고 주장한다.

마누엘 데 란다(2003)도 자인하듯 ‘유전적 알고리즘’의 변수를 정하고 틀을 설정하는 중요한 작업에는 디자이너의 자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는 그 사실에 기반해 건축가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어야한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실은 디자인 프로세스가 자연 과학과 같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다는 사실은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 4.4 소결

[표 4-1] 사례 분석의 정리

사례	드러난 생기론적 사유	가동성mobility	생산되는 주체성	환경적 유형의 개입
Villa VPRO	매끄러운 공간, 랜드스케이프, 가능성의 장	오직 여섯 겹의 주름진folded 바닥판으로만 공간을 구성. 건축물의 내·외부 경계를 적극적으로 해체해서 공간으로의 출입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려는 의도. 방향의 위계에 대한 어떠한 실마리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공간을 부유하게 됨.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나 제약이 적은 환경은 휴식과 노동의 경계를 해체. 주체는 사무실이란 전통적 공간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지만 중단 없는 생산성의 장에 구속됨.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적응하고 살아남는 기업처럼 공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유연하게 적응할 것을 요구함.	연속적이고 방향성 없는 공간에서 주체가 끝없이 이동하도록 유도. 이동 중에 있는 주체들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지식을 생산하고 사업을 도모하는 기업가로 거듭나도록 이끔. 노동과 휴식 공간의 경계를 해체해 주체를 끊임없는 생산성의 장에 구속.
Rolex Learning Center	매끄러운 공간, 랜드스케이프, 가능성의 장	벽으로 공간을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출렁이는 바닥판이 높낮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며 소극적으로 공간을 구획. 최소한의 물리적 구분 아래 공존하는 이질적인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이용자들의 마주침과 연결을 극대화하는 기능	이 건축 공간이 생산하고자 하는 주체는 규율 사회의 학생이 아님. 학생들은 지식의 생산뿐만 아니라 지식을 자본화하고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기업가 entrepreneur로서의 주체성도 요구 받음.	학제로 구분된 전통적인 경계를 허물고 과학적 영감과 협동의 정신이 예기치 못한 만남과 사건에서 자유롭게 창발할 수 있는 대학 환경을 조성하려는 대학 경영진의 기획. 만남과 가능성의 장 조성.



<p>Melun-Sénart Urban Plan</p>	<p>카오스</p>	<p>도시에서 자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말은 도시의 규제가 자본 순환을 막지 않는다는 뜻. 쿨하스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도시의 카오스라고 칭했던 현상도 규제 of 사각지대에서 순환하고 성장하는 자본의 물적 발현. 둘러싸인 프로그램의 밴드로 인해 최소한의 방향성이 제안되는 것을 제외하면 자본은 섬안에서 또는 섬 사이를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음.</p>	<p>보이드는 도시의 무한한 잠재적 사건들을 가능하게 하는 장으로서 가능하며 프로그램의 띠들에 의해 조각난 도시의 "섬"들은 도시의 혼돈스러운 질서를 수용하며 제한 없이 진화하는 공간. 비워진 공간으로서의 프로그램 띠, 즉 보이드 밴드는 디자이너나 도시계획가가 인지할 수 없는 도시의 복잡한 질서를 수용하는 그릇과 같은 역할.</p>
<p>Yokohama Port Terminal</p>	<p>복잡계, 자생적 질서</p>	<p>도시의 복잡성에서 드러나는 순환의 자생적 질서를 공간 조직의 원리로 채택. 도시와 페리 사이에서 어느 곳으로도 움직임을 유도하지 않고 이용자가 공간 자체에 머물면서 부유할 수 있도록 안내. 도시의 순환 circulation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그물망의 적절한 위치에 노드로서의 건축물을 추가하는 FOA의 직관적 접근은 함께 어우러져 이동의 옵션을 배가.</p>	<p>FOA가 디자인 방법론으로 채택한 복잡한 컴퓨터 알고리즘은 일련의 환경과 프로그램적 요구들을 변수로 설정하고 데이터 가공해서 결과로서의 형태를 생산. 건축가는 디자인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거리를 두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전면에 내세움. 그 결과, 건축물은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의 위상을 갖게 됨.</p>



## 제 5장 결론

---

### 5.1 종합 및 결론



## 5. 결론

### 5.1 종합 및 결론

이로써 “생기론적 사유에 기반한 건축은 과연 해방적인가?”에 대한 저자의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생기론적 사유는 20세기 중반, 건축뿐만 아니라 철학, 과학,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근대적 사고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했다. 20세기 전반기까지의 근대적 사고는 결정론적이고 환원주의적이면서 이원론적인 특징을 지닌다. 반면, 현대의 생기론적 사유는 결말에 열려있고, 전일적이며 전체를 생각하는 종합적인 사고의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현대 건축은 생기론적 사유를 적극 디자인의 원리로 채택하며 근대의 구속적 공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본고는 생성적 사유를 활용한 건축이 주체를 해방과 자유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건축가들의 믿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질 들뢰즈의 통제 사회 논의를 통하여 현대 사회의 권력이 규율 사회의 그것과는 다르게 연속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에서 변이를 일으키며 간접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 권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미셸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 논의를 통해 신자유주의 권력의 형성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권력은 복잡계 유추의 논리를 통해 제 영역에 시장의 질서를 전파함을 확인하였다. 또, 푸코의 분석에 기반해,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생산하며 주체의 모빌리티를 장려하고 행동에 대한 직접적 간섭보다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환경적 유형의 개입을 통해 작용하는 현대 권력의 원리도 이해할 수 있었다.



2장에서 현대 신자유주의 통제 사회의 권력 메커니즘을 파악했다. 3장에서는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가 생성적 사유에 기대어 건축의 실천과 담론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하였다. ‘통제 사회-신자유주의 통치성-포스트포디즘’이 묘사하는 사회의 권력은 생명 현상에서 유사한 패턴이 관찰된다는 논리 하에 여러 영역의 복잡해 보이는 현상에서 유사한 질서, 즉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유추해낸다. 건축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 기업의 네트워크 조직 이론을 참고하여 디자인에 반영하는 건축계의 논리와 복잡계로서의 시장 프로세스를 완전한 정보처리 과정으로 여기고 도시의 공간 조직에 적용하고자 하는 논리가 그 단적인 예시로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구체적인 건축과 도시 계획 사례들을 조사하여 공간, 자본, 주체 등이 권력의 거시적 장안에서 배치를 이루어 작동하는 방식을 탐구하였다. 특히, 자유를 표방하는 건축이 정반대로 신자유주의 통제 권력에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 분석한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3가지 기획을 사례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MVRDV의 Villa VPRO, SANAA의 Rolex Learning Center, Rem Koolhaas의 Ville Nouvelle Melun-Sénart, FOA의 Yokohama Port Terminal에서 각각 생기론적 사유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공간이 모빌리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신자유주의 주체가 생산되는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환경적 유형의 개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생기론적 개념이 디자인 생성 원리로서 폭넓게 탐구되고 근대적 공간의 구축



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적 도구로까지 자리매김하는 동안 그 조류에 대한 비판의 담론은 미미하게 형성되었다. 이어 본고는 들뢰즈가 현대 권력과 통제의 메커니즘을 묘사하기 위해 동일한 개념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생기론적 사유에 기반한 건축이 주체의 해방보다는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통제 사회나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설정하는 사회의 틀은 자연적이고 당연한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그 외부를 상상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건축계에서도 현 시대의 지배적 체제를 진단하고 비판적 담론을 생산하며 대안을 제시하려는 태도가 꾸준히 요구된다.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통제 사회의 전자적 감시 체계와 건축 공간의 관계와 같이 본 연구가 미처 다루지 못한 감시와 통제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논문

1. 장용순 (2012). 현대 건축에 나타난 생기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8(7), 173-184.
2. 박종진, & 남성택 (2013). EPFL 롤렉스 러닝센터에 대한 연구: 건축 개념의 배경부터 실현에 이르기까지.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9(5), 49-58.

#### 단행본

1. 임기택 (2014). 통제담론과 건축이론. 서울: 시공문화사.
2. 임기택 (2016). 후기구조주의와 건축이론. 서울: 시공문화사.
3. 장용순 (2013)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4. 생기론. 파주: 미메시스.
4. 정정훈 (2007). 5강 전자감시의 시대, 혹은 통제 사회의 도래. 이진경 (편).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 현대문화론 강의』. 서울: 그린비.
5. Foucault, M. (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심세광 · 전혜리 · 조성은 공역). 서울: 난장.
6. Foucault, M. (2016). 감시와 처벌 : 감옥의 탄생(번역개정판 ed.). (오생근 역). 파주: 나남.
7. Foucault, M., and Derfert, D. (2014).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 2) 국외 문헌

### 논문

1. Cooper, M. (2011). Complexity theory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death of neoliberalism or the triumph of hayek?. *Journal of Cultural Economy*. 4(4), 371-385.
2. Deleuze, G. (1992).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 *October*, 59, 3-7.
3. Jacobs, S. (2000). Spontaneous order: Michael polanyi and friedrich hayek.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3(4), 49-67.
4. Schumacher, P. (2016). Hegemonic parametricism delivers a Market-Based urban order. *Architectural Design*, 86(2), 114-123.

### 단행본

1. Böck, I. (2015). *Six Canonical Projects by Rem Koolhaas: Essays on the History of Ideas*. Austria: jovis Verlag.
2. de Landa, M. (2003). *Deleuze and the use of the genetic algorithm in architecture. Phylogenesis: Foa's arc, foreign office architects*. Barcelona: Actar.
3. Deleuze, G., and Guattari, F. (1988).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4. Deleuze, G. (1995). *Negotiations, 1972-1990*. Columbia University Press.
5. Hayek, F. and Hamowy, R. (2021). *The Constitution of Liberty: The Definitive E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 Schumacher, P. (2005). Spatializing the complexities of contemporary business organization. Corporate Fields-New Office Environments. London: AA Publications.
7. Steele, B. D., Benjamin, A., & London Architectural Association. (2005). Corporate fields: new office environments by the AA DRL. Architectural Association.
8. Spencer, D. (2016). The architecture of neoliberalism: How contemporary architecture became an instrument of control and compliance. Longdon: Bloomsbury Publishing.
9. Taylor, D. (2014). Michel foucault: Key concepts. Oxfordshire: Routledge.
10. Zaera-Polo, A., and Moussavi, F. (2003). International port terminal yokohama | 1996-2002. Phylogenesis: Foa' s arc, foreign office architects. Barcelona: Actar.
11. Waldheim, C. (2016) Landscape as Urbanism: A General The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학위논문

1. Spencer, D. (2012). Smooth operators: Architectural delezism in societies of contro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estminster. London.

#### Website

1. Arquitectura Viva (Firm). (2016). Villa VPRO, Hilversum.  
<https://arquitecturaviva.com/works/villa-vpro-5>. 2022. 03. 02.



2. Dommershausen, A. (2020). Program Breaking the Boundaries, Yokohama Ferry Terminal.  
<https://www.iaacblog.com/programs/breaking-the-boundaries-yokohama-ferry-terminal-mater-in-advanced-architecture-iaac-blog/>. 2022. 03. 02.
3. Minutillo J. (2010). Rolex Learning Center by SANAA.  
<https://www.architecturalrecord.com/articles/8237-rolex-learning-center-by-sanaa>. 2022. 05. 12.
4. MVRDV (Firm). (2020). Villa VPRO.  
<https://www.mvrdv.nl/projects/172/villa-vpro>. 2022. 03. 01.
5. Schumacher, P. (2017). Architecture in a post-fordist network society.  
<https://www.stylepark.com/en/news/parametric-architecture-thesis-patrik-schumacher-zaha-hadid-architects>. 2022. 02. 14.
6. Vreeberg, G. De architectuur van het interieur / architecture of the interior. mvrdv: Villa vpro.  
<http://archis.org/volume/de-architectuur-van-het-interieur-architecture-of-the-interior-mvrdv-villa-vpro/>. 2022. 02. 02.

### 3) 그림출처

[그림 3-1] Corporate Fields, 2005, pp. 152-153

[그림 3-2] Corporate Fields, 2005, p. 174

[그림 3-3] Corporate Fields, 2005, pp.175-179

[그림 3-4]

<https://www.patrikschumacher.com/Images/Hegemonic%20Parametricism%20delivers%20free%20market%20urban%20order/6.jpg>



[그림 4-1]

<https://nemophilistnilly.files.wordpress.com/2013/10/pentonville-prison-granger1.jpg?w=640>

[그림 4-2]

[https://payload.cargocollective.com/1/18/591269/10852168/AtomedicHospital\\_1000.jpg](https://payload.cargocollective.com/1/18/591269/10852168/AtomedicHospital_1000.jpg)

[그림 4-3]

<https://www.mvrdiv.nl/media//scraped/5a511f3c-6db8-4779-84b1-4e821d8b8b2b.jpg?width=1920>

[그림 4-4]

좌: <https://arquitecturaviva.com/works/villa-vpro-5>. 2022. 03. 02.

우: <https://arquitecturaviva.com/works/villa-vpro-5> 2022. 03. 02.

[그림 4-5]

<https://cdn.archilovers.com/projects/d29e86c4-68e4-417e-9020-cbbe805d48ec.jpg?w=1046&h=688>

[그림 4-6]

<https://www.architecturalrecord.com/articles/8237-rolex-learning-center-by-sanaa>. 2022. 05. 12.

[그림 4-7]

<https://cdn.archilovers.com/projects/376479b0-427d-4b2a-91da-90b9fe32fd56.jpg?w=1046&h=688>

[그림 4-8]

[real PROJECT] 로잔공과대학, 롤렉스 러닝 센터, 월간 건축문화(347), p.61



[그림 4-9]

[https://www.architecturalrecord.com/ext/resources/Static\\_Images/Slideshow-Fixes/Slideshow-Fixes-13/Rolex-Learning-Center/Rolex-Learning-Center-07.jpg?t=1476977593&width=900](https://www.architecturalrecord.com/ext/resources/Static_Images/Slideshow-Fixes/Slideshow-Fixes-13/Rolex-Learning-Center/Rolex-Learning-Center-07.jpg?t=1476977593&width=900)

[그림 4-10]

<https://spacecollector.files.wordpress.com/2018/06/six-canonical-projects-by-rem-koolhaas-95.jpg>

[그림 4-11]

[https://images.adsttc.com/media/images/5420/78f1/c07a/8086/fc00/000a/slideshow/YOKO\\_CIRCULATION\\_diagram.jpg?1411414247](https://images.adsttc.com/media/images/5420/78f1/c07a/8086/fc00/000a/slideshow/YOKO_CIRCULATION_diagram.jpg?1411414247)

[그림 4-12]

[https://images.adsttc.com/media/images/5420/791e/c07a/8086/fc00/000d/slideshow/yipt-0702-valerie\\_bennett-02.jpg?1411414296](https://images.adsttc.com/media/images/5420/791e/c07a/8086/fc00/000d/slideshow/yipt-0702-valerie_bennett-02.jpg?1411414296)

